

신라의 報德國 經略과 一統 이념*

권창혁**

-
- I. 머리말
 - II. 문무왕 시기 나당전쟁의 추이와 한성 고구려국의 역할
 - III. 신문왕 시기 보덕국의 해체와 일통 이념의 구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668년 이래 신라는 나당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반도 삼국의 분할·병존을 골자로 하는 당 기미주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더불어, 그를 파훼하며 영향력을 부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안배 아래 서북방면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배후에서 직간접적으로 후원하였다. 그에 따라 여러 유민 집단이 신라의 후원과 책봉 아래 고구려 왕실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계승자(嗣子)’ 안승을 매개로 결합하면서 670년 초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 한성 고구려국과의 연계 및 후원을 통해 북방전선을 상당 기간 안정시킨다는 실질적인 전략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반도 역내에서만큼은 신라 중심의 해계모니와 도덕적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게 하는 이념적 장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672-673년 당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면서 한성 고구려국은 원 근거지를 상실하고 잔여세력이 신라 영내로 유입되었다. 신라는 원활한 통제를 위해 이들을 금마저(익산)에 집단적으로 안치시켰으며, 아울러 674년에는 안승을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다시금 책봉하여 상하 위계를 한층 명확히 하였다. 이는 결국 상황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전략적 가치를 대체하여, 보덕국을 복속시킨 신라의 ‘위덕(威德)’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의례적·이념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도 이해된다.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 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포항시청 학예연구사

이후 나당전쟁이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까운 형태로 일단락되면서 보덕국의 처리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문무왕대와는 달리 신문왕대에 들어서는 즉위 직후 김흠돌 세력의 숙청을 계기로 중앙집권화·관료화라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 보덕국의 처리 역시도 전면적인 해체와 동화라는 급진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즉 대내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고구려 유민 문제의 해결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684년 보덕성민의 대대적인 반란으로 비화되었다. 반란 자체는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던 옛 삼국 유민의식이 가진 폭발력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신라는 반란 진압 이후에도 보덕성민에 대해 강경책만이 아니라 온건책도 병행하되, 철저히 신라 중심적인 기준으로 여러 주민집단 상호 간의 연계를 막으며 감시와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필요성 아래 신라를 중심으로 한 일통 이념 역시도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한성 고구려국(漢城 高句麗國), 보덕왕(報德王), 보덕국(報德國), 안승(安勝), 고구려민(高句麗民), 보덕성민(報德城民), 일통이념(一統理念)

I. 머리말

668년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은 기미주를 편제하여 고구려의 영토 및 유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직후부터 고구려인들의 대대적인 저항과 더불어, 신라 역시도 그간 당의 일방적인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만 아래 고구려인들의 무력투쟁을 지원하였다. 물론 이러한 신라의 의도는 궁극적으로는 소위 ‘평양이남 백제토지(平壤以南 百濟土地)’로 요약되는바 영토와 관련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으며, 결국 7년여에 걸친 나당전쟁(670-676)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나당전쟁을 추동했던 핵심 축이란 고구려와 백제가 사라진 이후 그 남은 유산(즉 영토 및 유민)의 향방을 둘러싼 당과 신라라는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이었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다.

기왕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덕국(報德國, 혹은 한성漢城 고구려국)¹⁾의 전말에

1) 엄밀히 말하자면 674년 9월 신라에 의해 안승이 기존의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다시 책봉된 이후 시점(『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 9월)을 기준으로 비로소 ‘보덕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처음 거병했던 670년부터 674년 이전까지의 안승 등의 세력을 과연 무엇으로 칭할지가 애매한 점이 있을 것인데,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고구려국’·‘한성고구려국’·‘부흥고구려국’ 등으로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역으로 674년 ‘보덕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는 아마도 이 보덕국이 670년 안승·검모잠 등의 봉기 이래로 옛 고구려의 핵심적 영역이었던 한성(재령) 등지의 패강 이남 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칭왕하는 등 668년 직후부터 빈발하였던 여러 부흥운동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신라와 연계하며 나당전쟁의 승리에 조력하였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신라 영내의 金馬漕(익산)에 정착한 이래 그 국가체제의 일부로 통합되어 신라의 ‘一統’ 과정과 그 이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만큼 이 보덕국에 대해서는 그 성립과정 및 배경,²⁾ 전반적인 활동양상,³⁾ 주요 수뇌부의 성격 및 정세 인식⁴⁾ 등을 비롯하여, 해체 및 신라로의 편입 과정⁵⁾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검토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비단 고구려사(부흥운동) 뿐만이 아니라 신라사의 맥락에 있어서도 나당전쟁 시기의 전략·외교적 활용,⁶⁾ 피복속민을 대상으로 한 민족 융합 및 지배정책,⁷⁾ 제도·의례·이념 및 천하관 등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위상⁸⁾ 등과 같이 보덕국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사(=부흥운동)로서의 맥락과 신라사(=통일과정)로서의 맥락에 각각 초점을 둔 두 시각은 종종 상호 대립적으로 이해되곤 했다. 다만 근래 몇몇 연구들에서도 익히 지적된 바와 같이,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의 역사적 의미란 애초에 서로 表裏와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관계로서 절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나당전쟁사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 보덕국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유민들의 부흥운동이라는 요소는 분명 정치·외교상의 이념과 명분, 그리고 실질적인 전략의 양 측면을 관통하는 핵심에 가까운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⁹⁾ 반대로 고구려 부흥운동 자체도 이 나당전쟁이 계기로서 작용하였던 신라와의 협력과 민족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국 고대사의 한 단면으로서 더욱

왕’ 책봉 이후의 시점은 포괄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겠지만 674년을 계기로 이들 안승 세력의 국가적 성격 및 지역적 기반, 인적 구성 등은 물론이거니와 신라와의 관계 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김강훈, 2022, 188쪽), 본 연구에서는 일단 편의상 안승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보덕국’을 칭하되, 굳이 나누자면 670-674년 이전 시점까지는 ‘한성 고구려국’, 674년 이후 시점부터는 ‘보덕국’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원용하고자 한다.

- 2) 池內宏, 1960 ; 이병도, 1976 ; 村上四男, 1978 ; 손영중, 2000 ; 김종복, 2003 ; 김종복, 2010 ; 이상훈, 2014 ; 최재도, 2015 ; 장병진, 2016 ; 여호규·拜根興, 2017 ; 방용철, 2018 ; 김수진, 2020.
- 3) 임기환, 2004 ; 임기환, 2024 ; 이재석, 2010 ; 조법중, 2015 ; 김강훈, 2022.
- 4) 이정빈, 2009 ; 정원주, 2018 ; 정원주, 2019 ; 최호원, 2020.
- 5) 서영교, 2009 ; 정선여, 2010 ; 정선여, 2013 ; 한준수, 2023.
- 6) 양병룡, 1997 ; 신은이, 2018 ; 신은이, 2023 ; 井上直樹, 2021 ; 권창혁, 2021 ; 植田喜兵成智, 2022..
- 7) 김수태, 1994 ; 이미경, 2015 ; 최희준, 2020.
- 8) 박초룡, 2017 ; 최희준, 2021 ; 방용철, 2021 ; 추명엽, 2022.
- 9) 양병룡, 1997, 29-30쪽 ; 권창혁, 2021, 168쪽 ; 植田喜兵成智, 2022, 240-253쪽 ; 신은이, 2023, 131-134쪽.

풍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특히 고구려까지도 포괄하는 신라의 민족 융합과 통일과정으로서의 맥락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한다. 즉 이는 안승과 보덕국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신라가 당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고구려의 인적 자원(주민)과 영역, 그리고 정통성 및 계승의식 등의 요소들을 포섭해나가는 과정이자 건국 이래로 주변 세력을 정복·흡수하며 성장해왔던 신라의 역사적 경험이 집대성된 사례이며, 궁극적으로는 ‘일통’이라는 당대 왕권의 이념적 기반으로까지 발전·구현되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략 문무왕 시기 한성 고구려국의 성립(670)부터 신문왕 시기 보덕국의 해체(684)까지 고구려 유민들의 활동으로 야기되었던 일련의 국면들과 그에 대한 신라 측의 대응이라는 역사상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중 특히 이 보덕국의 존재 자체가 고구려까지도 포괄하려는 당대 신라 왕권의 ‘일통’ 이념 구현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의 측면도 살펴보려 한다.

II. 문무왕 시기 나당전쟁의 추이와 한성 고구려국의 역할

익히 알려져 있듯이 670년 초반 신라는 자국에 대하여 ‘藩屏(변경을 지키는 제후국)’을 자처하였던 검모잠 등 고구려 유민 세력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을 지원하는 한편, ‘興亡繼絶’의 명분 아래 고구려 왕족 안승을 다름 아닌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관련된 사료들을 다시금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①. (總章) 2년 기사(669) 2월에 (보장)왕의 서자 安勝이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였다.¹⁰⁾

A-②. (670년 3월) 사찬 설오유가 고구려 태□□인 □연무¹¹⁾와 더불어 각각 정예병 1만을 이끌고 鴨淥江을 건너 屋骨에 이르러 □□□하였다. 말갈병이 먼저 皆敦壤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름 4월 4일에 맞아 싸워 크게 이기니 목을 벤 것을 가히 헤아릴 수 없었다. 당병이 이어서 도착하니 우리 군대는 퇴각하여 白城을 지켰다.¹²⁾

A-③. (670년 4월) 고구려의 추장 鉗牟峯(검모잠)이 배반하여 변경을 노략질하니 좌

10) 『삼국사기』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附 “(總章) 二年己巳 二月 王之庶子安勝 率四千餘戶 投新羅”

11) 원문이 훼손되어 글자가 보이지 않으나, 이후 680년에 보덕국에서 신라에 보낸 사절로서 그와 동일인물로 보이는 ‘대장군 태대형 연무(大將軍 太大兄 延武)’라는 인물이 나타나므로(『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20년 5월), 이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12)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3월 “沙滄薛烏儒與高句麗太□□□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淥江 至屋骨□□□ 靺鞨兵先至皆敦壤待之 夏四月四日 對戰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我兵退保白城”

감문위대장군 고간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고 우령군위대장군 이근행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¹³⁾

A-④. (670년 6월) 고구려의 水臨城 사람인 牟岑 大兄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 함하여 窮牟城에서부터 溟江 남쪽에 이르러 당의 관리 및 승려 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여 갔다. 서해의 史治島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 안승을 발견하여 漢城(재령) 안으로 맞아들여 군주로 삼아 받들었다. 小兄 多式 등을 (신라에) 보내어 애절하게 고하기를 “망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것(興滅國 繼絕世)은 천하의 公儀이니, 오로지 大國에게 이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리를 잃어 멸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신들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얻어 군주로 삼아 받들었습니다. 원컨대 藩屏이 되어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을 나라 서쪽 金馬渚(익산)에 거처하도록 하였다.¹⁴⁾

A-⑤. 사찬 須彌山을 보내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삼아 봉하였다. 그 책문에서 말하기를 “함형 원년 경오(670)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왕이 고구려의 계승자(嗣子) 안승에게 命을 전한다. 공의 太祖이신 中牟王은 쌓은 德이 북쪽 산(北山)과 같고 세운 功이 남쪽 바다(南海)와 같아서 위엄 있는 풍모(威風)가 靑丘에 떨쳤으며 어진 가르침(仁教)이 玄菟를 덮었다. 자손이 서로 이어지고 뿌리와 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여 땅을 개척한 것은 1,000리가 되었고 (나라를 이어온) 햇수는 거의 800년이 되었다. 남건·남산 형제의 때에 이르러 재앙이 병풍 안에서 일어나고 骨肉 간에 틈이 생겨 집안과 나라가 깨어져 없어지고 종묘와 사직이 흔적도 없어지니 살아있는 사람은 혼란에 빠져 마음 둘 곳조차 없었다. 공은 산야에서 위난을 피하다가 홀몸으로 이웃 나라에 의탁하였으니, 떠돌아다니며 겪은 고생은 晉文公의 자취와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衛侯(위선공衛宣公)의 일과 같다. 대저 백성에게는 주인이 없을 수가 없으니, 하늘(皇天)은 반드시 돌보라는 명(眷命)을 내리는 법이다. 선왕의 정당한 계승자는 오직 그대뿐이니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면 누구인가. 삼가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마침내 책명을 펼쳐 공을 고구려왕으로 삼으니, 그대는 마땅히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모아 옛 실마리를 이어 흥하게 하고 영원히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섬기면서 공경하고 또 공경하라. 겸하여 땀 2천석과 갑옷을 갖춘 말 1필과 능직물(綾) 5필과 면(絹)·세포(細布) 각 10필과 비단(綿) 15칭을 보내니 왕은 이를 받으라.” 라고 하였다.¹⁵⁾

13) 『신당서』 권3, 高宗本紀 咸亨 원년 4월 庚午 “高麗酋長鉗牟岑叛 寇邊 左監門衛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 右領軍衛大將軍李謹行爲燕山道行軍總管 以伐之”

14)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6월 “高句麗水臨城人牟岑大兄 收合殘民 自窮牟城至溟江南 殺唐官人及僧法安等 向新羅行 至西海史治島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遣小兄多式等哀告曰 興滅國繼絕世 天下之公義也 惟大國是望 我國先王以失道見滅 今臣等得國貴族安勝奉以爲君 願作藩屏永世盡忠 王處之國西金馬渚”

15)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8월. “遣沙滄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公太祖中牟王 積德北山 立功南海 威風振於靑丘 仁教被於玄菟 子孫相繼 本支不絕 開地千里 年將八百 至於建產兄弟 禍起蕭牆 釁成骨肉 家國破亡 宗社湮滅 生人波蕩 無所託心 公避危難於山野 投單身於鄰國 流離辛苦 迹同晉文 更興亡國 事等衛侯 夫百姓不可以無主 皇天必有以眷命 先王正嗣唯公而已 主於祭祀非公而誰 謹遣使一吉滄金順彌山等 就披策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鄰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 綾五匹 絹細布各十匹 綿十五稱 王其領之”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A군 사료상에 보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670년대 이전, 아마도 669년 무렵부터 신라는 이미 안승 혹은 (고)연무를 비롯한 고구려계 고위층 인물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 고구려 유민들의 당에 대한 저항 및 이탈을 은밀히 후원·조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신라가 원해왔던바 한반도 내 당 기미주 질서의 붕괴 및 고구려고지(특히 패강 이남 방면)에 대한 신라 측 영향력의 扶植을 계획하였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즉 기왕에도 몇 차례 지적된 바 669년 4월 신라로 향했던 안승과의 접촉(A-①), 혹은 고구려 유민 세력과 신라군 간의 연계가 최초로 표면에 드러났던 670년 3-4월의 옥골·개둔양 전투(A-②)에서부터 마치 여기에 호응하듯 그 직후 발발한 검모잠의 봉기 및 남하(A-③·A-④), 이후 670년 6-8월 안승의 웅립 및 그에 대한 공식적인 고구려왕 책봉(A-⑤)에 이르기까지, 약 1년여도 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다기보다는 이 모두가 철저하게 기획된 전략적인 布石에 가깝다는 의심을 떨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¹⁶⁾ 무엇보다도 때마침 당과 신라 간의 군사·외교적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던 이 669-670년이라는 시점, 아울러 신라와 인접해 있던 漢城(재령) 등지의 패강 이남 방면이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시공간적인 측면 역시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 과정 배후에는 신라의 명백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여지가 있다. 즉 A-① 기사에 보이는 669년 초 안승의 신라 來投 등의 사례를 볼 때, 적어도 해당 시점에 신라가 안승 등의 세력과 접촉하면서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¹⁷⁾ 아울러 A-②의 옥골·개둔양 전투 당시 신라군과 연합한 고구려 측 지휘관으로 언급되는 ‘태대형 (고)연무’의 사례 역시도 그 경로 및 행군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집단 또한 669년 무렵이나 그 이전부터 이미 신라와 접촉·연계를 취하고 있었으리라 추정이 가능하다.¹⁸⁾ 뿐만 아니라 이 고연무 집단의 세력 기반 및 활동 범위 역시도 본래 한성 일대였으리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¹⁹⁾ 따라서 669년 시점에 이 한성을 비롯한 패강 이남 방면을 중심으로 안승과 고연무 등의 고구려계 유민 집단, 그리고 신라 사이의 긴밀한 협조 관계의 형성이 상정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670년 초반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압록강 도하작전 및 검모잠의 거병이라는 연쇄반응이 촉발됨에 따라, 요동 방면에서 남하한 검모잠 집단과 한성 방면의 고연무 집단이 신라의 후원 아래 고구려 왕실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계승자(嗣子)’로서 공인된 안승의 존

16) 권창혁, 2021, 180-183쪽.

17)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669년 초반 시점에 안승이 신라와 처음으로 접촉하면서 투항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실현되지는 못하고 당의 강제 사민을 피해 ‘서해 사야도’에 은거했던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안승이 거느렸다고 하는 ‘4천여 호’라는 규모는 당시에 세력 기반으로 삼고자 시도했던 漢城 일대 광범위한 권역의 유민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강훈, 2022, 133-136쪽).

18) 노태돈, 1997, 2-8쪽; 이상훈, 2010, 258-259쪽.

19) 이정빈, 2009, 144-145쪽.

재를 매개로 결합한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이라는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졌던 셈이다.²⁰⁾

그런데 신라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러한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을 적극 후원했던 것일까? 우선 실질적인 전략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성 고구려국 스스로가 자처했던 대로 신라의 ‘藩屏’으로서 서북방면의 최전방에 자리 잡아 예상되는 당의 침공 경로를 한정시키고 그 시기 역시 지연시키면서 북방전선을 상당 기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²¹⁾ 특히 한성 고구려국이라는 정통성을 갖춘 구심점의 등장을 계기로 고구려인들의 항쟁 역시도 가깝게는 옛 수도인 평양 인근에서부터 멀게는 안시성 등 요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던 정황이 나타난다. 이는 결국 요동-서북방면의 육로를 통한 당군의 남하를 극히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²²⁾ 이 와중에(670-672) 신라로서는 백제고지를 전격적으로 장악하는 한편,²³⁾ 임진강·한강 유역 등의 북방 변경에 대한 방어망 및 보급체계

20) 특히 『당회요』나 『자치통감』 등에서는 670년 4월 시점의 기사 중에 검모잠의 거병부터 안승의 응립, 검모잠의 살해 및 안승의 신라 망명까지의 장기간의 모든 추이가 한꺼번에 압축되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A-③의 『신당서』 본기 기사와 대조해본다면 이 670년 4월은 곧 검모잠이 최초로 거병하여 ‘구변(寇邊)’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였으며, 그를 인지한 당 조정에서 연산도·동주도행군의 토벌군을 편성했던 시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임기환, 2004, 329-331쪽; 최재도, 2015, 146-147쪽; 정원주, 2018, 95-96쪽; 권창혁, 2021, 178-182쪽; 김강훈, 2022, 81-88쪽). 아울러 최근 이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로 언급되는 ‘窮牟城’ 등을 요동 방면의 蓋牟城(선양) 등으로 비정하며 검모잠 집단이 이후 안승·고연무 세력과의 접촉 및 신라와의 연계를 위해 패강 이남 방면으로 남하했던 것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는데(이상훈, 2014, 68-76쪽; 이상훈, 2023, 139-141쪽; 김강훈, 2022, 88-115쪽), 그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다름 아닌 고구려 부흥세력과 신라군의 연합작전으로 전개되었던 옥골·개둔양 전투 역시 이러한 검모잠의 거병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A-②에서 보이듯이 이 설오유·고연무 등이 큰 전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병이 도착하자 더 이상 교전을 확대하지 않고 빠르게 철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이들의 작전 목적이 검모잠의 거병 및 패강 방면으로의 남하를 지원·엄호하는데 한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권창혁, 2021, 183-186쪽).

21) 같은 시기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원산만 일대의 장악에도 관심을 쏟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즉 이 한성 고구려국 및 신라 관할 하의 비열홀·천정군 등지를 각각 서북방면과 동북방면에서 당군의 남하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전선의 두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무렵 신라가 구상했던 대전략이었으리라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권창혁, 2019, 305-309쪽).

22) 670년 초반 처음 편성되었던 고간·이근행의 2개 행군 4만 병력은 실상 671년 후반까지도 安市城 등 요동 방면의 저항 세력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구당서』 권84, 列傳34, 郝處俊; 『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2년 7월 乙未朔). 더하여 이 시점에서 고간·양방 등이 본래 평양에 소재하던 안동도호부를 요동 방면으로 이전했던 조치도 확인된다(『책부원귀』 권429, 將帥部90, 拓土;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高麗). 또한 671년·672년경 한반도에 진입한 고간 등의 행군이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던 지점으로서 평양성 자체, 그리고 그에 인접하여 대동강 수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거점성들로 비정되는 마음성(서학산성)·한시성(적두산성) 등이 언급되는데(『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6년 9월; 同王 7년 7·8월), 이는 역으로 당시까지 이러한 지점들이 당군의 적대세력(즉 고구려군, 혹은 신라군)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는 의미인 만큼 한성 고구려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이 적어도 평양 인근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최재도, 2015, 153-154쪽; 이상훈, 2017, 312-313쪽; 이상훈, 2022, 236-245쪽; 권창혁, 2021, 192쪽; 김강훈, 2022, 168-181쪽).

등을 확충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²⁴⁾ 또한 이 시점에 당군은 육상을 통한 한반도 방면 진입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부득이 해상을 통해 제한적인 공세 혹은 보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 수군이 이를 차단·격퇴하는 과정에서 서북한 연안 등 현지의 방어체계 및 지리를 잘 아는 한성 고구려국의 조력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²⁵⁾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신라에게 있어 한성 고구려국이란 나당전쟁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과 이념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나 당이 강요하던 한반도 방면 기미주 체제에 대항하는 한편, 신라가 자국을 중심으로 역내의 諸집단을 하위에 복속·통합할 수 있는 논리로서도 이 한성 고구려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은 재차 주목할 만하다. 즉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성 고구려국, 즉 고구려의 재건이란 ‘한반도 삼국에 대한 기미주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수년간에 걸친 당의 구상과 정책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요소였다. 그리고 A-④·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신라가 상위의 ‘大國’을 자처하며 책봉 등의 의례를 거쳐 공인하였다는 사실 역시도 추후 고구려의 영토와 정통성 등에 대해 신라도 어떠한 연고권 혹은 지분을 주장할 여지도 남기는 것이기도 했다.²⁶⁾ 애초에 당은 회맹의 강요나 신라군의 공헌을 일체 묵살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라가 백제·고구려고지에 진출할 명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두었다.²⁷⁾ 그러한 만큼, 신라로서는 당의 명분과 논리를 우회하면서 고구려고지 등에 진출·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는 ‘靑丘’, ‘三韓’, ‘海東三國’ 등으로 표상되던 한반도 역내의 전후 질서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멀리 당 조정이 아니라 바로 신라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선언으로도 파악할 여지가 있다.²⁸⁾ 말하자면 이 ‘고구려왕’에 대한 신라의 책

23)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10년 7월 “王疑百濟殘衆反覆 遣大阿滄儒教於熊津都督府請和 不從 乃遣司馬禰軍 窺覘 王知謀我 止禰軍不送 舉兵討百濟 品日文忠衆臣義官天官等 攻取城六十三 徙其人於內地 天存竹旨等 取城七 斬首二千 軍官文穎 取城十二 擊狄兵 斬首七千級 獲戰馬兵械甚多…”

24) 관련하여 晝長城(남한산성)·國原城(대림산성) 등과 같이 나당전쟁 중 漢山州 관내에 신·중축되었던 대규모 성곽들의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성곽들은 그 축성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669-672년 사이 시점에 이미 계획 및 착공이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축조 목적 또한 입보용 방어시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하여 한성 고구려국 지원 등을 위해 북방으로 투입될 인력 및 물자의 집결·보급 등에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권창혁, 2023, 292-298쪽).

25) 김강훈, 2022, 176-177쪽; 특히 이 시기 신라가 ‘文豆婁秘密法’으로 당군의 대규모 침공을 격퇴하였다는 기록에서 연안에 나타난 당군 함대를 발견하고 그 동향을 신라 조정에 알린 주체로서 현지의 고구려 세력으로 추정되는 ‘貞州(현 개풍군 일대)에서 보낸 사자[貞州使]’가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삼국유사』 권2, 紀異2 文虎王法敏), 비록 설화적인 요소로 윤색되어 있긴 하지만 나당전쟁 시기 황해 연안에 걸친 신라 수군의 활동에 있어서 한성 고구려국과의 협조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26) 김종복, 2010, 88-89쪽; 이재석, 2010, 39-40쪽; 김수태, 2014, 50-54쪽.

27) 김영관, 2009, 74-81쪽.

봉은 사실상 과거 당이 강요했던 취리산 회맹의 패러디(parody)로서, 당이 내세우던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사를 잇도록 한다(興亡繼絶)’ 라는 명분을²⁹⁾ 역으로 신라가 고구려(한성 고구려국)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되갚아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념적 측면에서 이러한 ‘흥망계절(興亡繼絶)’ 이란 王者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적 책무이자 그러한 존재만이 실현할 수 있는 천하의 ‘公義’로서 인식되어 왔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³⁰⁾ 그렇다면 이른바 ‘海東天下’, 혹은 ‘표상으로서의 三韓’이라는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큼은 곧 신라의 ‘大王’ 이야말로 그러한 도덕적 위상과 실현시킬 힘을 보유한 ‘王者’로서의 면모를 갖춘 존재라는 점을 고취·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³¹⁾

또한 익히 지적된바 이 시기 對倭 외교에 있어서도 신라 사절단과 ‘高麗’의 사절단이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함께 倭國에 파견되어 있거나 혹은 이 ‘高麗’의 사절단 중에 신라 측의 관인이 送使의 형태로 포함되던 양상도 많은 참고가 된다. 즉 관련하여 과거의 강국 고구려조차도 하위에 거느릴 정도로 명실상부 한반도 방면의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신라의 강대한 위세를 왜국 측에 인식시키려는 조치로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³²⁾ 이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라가 ‘고구려왕’의 책봉을 매개로 얻고자 했던 대내외적인 명분 및 이념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신라가 당을 宗主로 하는 기존의 동아시아 천하질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거나 혹은 당과 완전히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려 했다는 등의 이른바 ‘자주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외교상 완곡어법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일례로 「담설인귀서」에서도 일단은 ‘끝내 배반하려는 마음은 없다(終無反叛之心)’라고 술회하였던 점도 그러하

28) 최근 당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삼국지』·『후한서』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고조선 및 四郡의 옛 땅’으로 인식되던 평양 일대부터 그와 밀접한 관계 아래 ‘삼한’으로 지칭되던 한반도 중·남부까지 고대 한반도의 역사지리적 공간 전반을 포괄하는 세계관으로서 ‘表象으로서의 삼한’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즉 7세기 무렵의 신라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영토인 ‘평양이남과 백제토지’이자 중국과 구별되는 ‘我世界’로서 ‘일통’을 달성해야할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어 참고가 된다(기경량, 2019, 211-225쪽).

29) 『천지서상지』 권20, 盟誓 “...然懷柔伐叛 前王之令典 興亡繼絶 往哲之通規 事必師古 傳諸曩冊 故授前百濟太子司稼正卿扶餘隆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新羅 恭承詔命 永爲藩服...”

30) 즉 이 ‘흥망계절(興亡繼絶)’ 이란 夏·商 전대왕조의 후예를 우대했던 周 武王의 덕을 칭송한 『論語』 「堯曰篇」의 구절에서 유래한 관념으로, 춘추시대 이래 이는 동아시아 세계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관례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및 수·당대를 거쳐 ‘二王後’라는 형태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박초롱, 2017, 119쪽-137쪽). 그러한 만큼 취리산 회맹 당시에도 당 조정은 표면상 그 같은 수사를 내세우면서 의례의 권위와 의미를 한층 드높이는 한편 천하의 질서를 주재하는 王者로서의 위상을 구현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추명엽, 2022, 39-40쪽), 이것이 당장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을지언정 신라에게 있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겠다.

31) 임기환, 2004, 335쪽 ; 박초롱, 2017, 139-142쪽.

32) 이재석, 2010, 43-49쪽.

다.³³⁾ 즉 신라는 비록 명목상이긴 해도 당시의 국제적인 관례상 당 조정이 가지는 권위를 존중하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고구려·백제 양국 평정 과정에서의 수많은 기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³⁴⁾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당 태종이 직접 약속했던 ‘평양이남 백제토지’의 할양 등의 문제를 再論하면서,³⁵⁾ 신라를 중심으로 설정된 일정 권역(즉 ‘삼한’ 혹은 ‘해동’)에서만큼은 신라를 가장 우위에 두고 전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신라의 의지에 따라 이 방면의 전후 정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이것이 「답설인귀서」 전체를 관통하는 요체이자 당 조정에 대한 신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었던 셈이다. 말하자면 신라는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목·의례상의 중주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언정,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을 중심으로 설정한 한반도 역내에서 만큼은 여타 諸세력을 평정·복속시킨 우월한 위상을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해계모니를 장악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앞서 A-⑤의 안승에 대한 책봉문 중에 ‘이웃나라(隣國)’, ‘형제(昆弟)’와 같은 일견 대등한 관계가 설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왕’이 ‘하늘(皇天)’을 대리하여 ‘고구려왕’을 ‘책봉(冊封)’한다는 명백한 상하 위계가 동시에 발현되던 일견 이중적이고 모호한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³⁶⁾

이처럼 당시 신라에게 있어 한성 고구려국의 존속이란 실질적인 전략과 이념상의 명분 양 측면에서 공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한 만큼 671-672년 무렵부터 당군의 한반도 방면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한성 고구려국을 위해 신라가 총력을 기울여 대규모 지원 병력을 파견하였던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듯이 672년 8월의 석문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신라-고구려 연합군은 잇따라 당군에게 참패하였다.³⁷⁾ 그에 따라 신라로서는 기존에 구상하였던 북방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는

33)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且新羅自平百濟 迄定高麗 盡忠効力 不負國家 未知何罪 一朝遺棄 雖有如此冤枉 終無反叛之心 ….”

34)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 新羅兵士並云 自征伐已經九年 人力殫盡 終始平兩國 累代長望 今日乃成 必當國蒙盡忠之恩 人受効力之賞 ….”

35)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 先王貞觀二十二年 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非我所貪 玉帛子女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垂以計會 賜以軍期 新羅百姓具聞恩勅 人人畜力 家家待用 ….”

36) 추명엽, 2022, 45-46쪽 ; 植田喜兵成智, 2022, 254-257쪽 ; 아울러 당에서도 주변국에 대해 언제나 宗藩 관계로서의 藩臣禮의 원칙만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며, 吐蕃·回紇의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舅甥禮·兄弟禮 등 구속력이 열은 명목상의 一家로서의 상하 위계에 그치는 외교관계 및 의례를 다양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이완석, 2015, 「당대 국제관계와 외교체제의 변용」, 『중국중세사연구』 38, 230-243쪽). 한편 그러한 만큼 이 시기 신라의 경우에도 한성 고구려국, 그리고 이후의 보덕국에 대해 시기와 상황을 달리하며 안승을 매개로 일종의 兄弟禮 혹은 舅甥禮를 적용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 참고가 된다(최희준, 2021, 96-97쪽).

37)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2년 7·8월 ; 同書 권42, 列傳3, 金庾信 下附 金元述 ; 『구당서』 권5, 本紀5 高宗 下 咸亨 3년 是冬 ; 『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3년 12월.

상황에 놓였다. 즉 한성 고구려국의 존속을 전제로 이들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평양(평양) 이남’, 더 정확하게는 평양 일대-원산만 일대를 잇는 두 축선 이하의 권역에 대한 당의 간섭 배제 및 신라의 영향력 강화를 달성한다는 전쟁 초반의 대전략은 이미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³⁸⁾ 실제 이 시점을 전후하여 신라군은 김유신(595-673)의 조언에 따라 요해처의 守城을 위주로 하는 지구전 전략을 채택하였으며,³⁹⁾ 그에 따라 왕경으로 통하는 주요 남하 경로에 걸쳐 대규모 성곽을 신축 혹은 수·개축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수세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⁴⁰⁾ 더 나아가 동북방면으로는 비열홀(안변) 일대까지 진출해 있던 州(정후)를 후방의 牛首州(춘천)로 이동시키는 한편,⁴¹⁾ 서북방면으로는 호로하(임진강)·왕봉하(한강 하류)를 경계로 삼아 당군과 교전하는 등,⁴²⁾ 對북방 전선 역시 전반적으로 퇴축하는 모습도 나타난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의 지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성 고구려국 역시도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되어 당군의 추격을 피해 신라 영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 양상을 보여주는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①. (합형 4년, 673) 윤5월 정묘에 燕山道總管 이근행이 고구려의 배반한 무리들을 瓠蘆河의 서쪽에서 크게 깨뜨렸다. 고구려의 平壤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달아나 신라로 들어갔다.⁴⁵⁾

B-②. 이근행은 연산도총관·우령군대장군이 되어 합형 4년(673)에 호로하의 서쪽에서 크게 깨뜨리고 수천 명을 사로잡았다. 이로부터 평양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달아나 신라에 투항하였다.⁴⁶⁾

B-③. 총장 2년(669)에 고구려 백성 3만 명을 강(江, 강남江南)·회(淮, 회남淮南)·산남(山南)으로 옮겼다. 대장 鉗牟峯(검모잠)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하여 보장왕의 외손 安舜(안승)을 세위 왕으로 삼았다. 조서를 내려 고간을 東州道, 이근행을 燕山道로 아울러 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하도록 하였다. 司平太常伯 楊昉을 보내어 (고구려의) 망하고 남은 무리를 거두어 달래도록 하였다.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고간은 도호부의 治所를 遼東州로 옮기고 (고구려의) 반란군을 安市城에서 깨뜨리고 또 泉山에서 패배시키며 신라의 원병 2천 명을 사로잡았다. 이근행은

38) 권창혁, 2019, 308-309쪽 ; 권창혁, 2021, 196-198쪽.

39) 『삼국사기』 권42, 列傳3, 金庾信 下 附 金元述 “……大王聞之 問庾信曰 軍敗如此 奈何 對曰 唐人之謀 不可測也 宜使將卒 各守要害……”

40) 서영교, 2002,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 38, 65-69쪽 ; 이상훈, 2016,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23, 82-88쪽.

41)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六停 “……四曰 牛首停 本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42)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3년 9월 “唐兵與靺鞨契丹兵 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蘆王達二河 死者不可勝計”

43) 권창혁, 2019, 307-308쪽 ; 권창혁, 2021, 197-198쪽.

44) 김강훈, 2022, 185-186쪽.

45) 『구당서』 권5, 本紀5 高宗 下 咸亨 4년 “閏五月丁卯 燕山道總管李謹行 破高麗叛黨於瓠蘆河之西 高麗平壤餘衆 遁入新羅”

46) 『책부원귀』 권358, 將帥部19 立功11 “李謹行 爲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 咸亨四年 大破高麗叛徒於瓠蘆河之西 俘獲數千人 自是平壤餘衆 走投新羅”

(고구려군을) 發盧河에서 깨뜨리고 다시 싸워서 사로잡고 귀를 벤 것이 1만이 넘었다. 이에 평양의 쇠약해진 잔당들은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여 연이어 신라로 달아나니, 그리하여 4년 만에 이내 평정되었다.⁴⁷⁾

특히 위 B군 사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673년 윤5월 이근행이 ‘호로하의 서쪽(瓠盧河之西)’, 즉 신라와의 국경지대인 임진강 북안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크게 격파하자 그로 인해 이후 ‘평양에 남아있던 무리(平壤餘衆, 혹은 平壤殘)’ 들이 군대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빠져 신라로 달아났다는 내용을 전한다. 또한 669년 이래 고구려 유민의 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추이를 서술한 B-3의 『신당서』 열전의 경우에는 ‘4년 만에 이내 평정되었다(凡四年乃平)’ 라고 부연하여, 이 673년의 전투를 계기로 한성 고구려국의 소멸과 함께 고구려 부흥운동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당 측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⁴⁸⁾ 여기서 ‘高麗平壤餘衆’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전부터의 여러 정황이나 옛 수도인 평양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안승이나 고연무 등의 한성 고구려국 수뇌부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⁹⁾ 그렇다면 B군 기사들의 내용이란 적어도 해당 시점까지는 한성 고구려국이 형식상이나마 존속하고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전황 악화 및 군사력 소모를 버티지 못하고 서북방면의 원 근거지를 벗어나 신라에 의탁하여 생존을 도모하고자 했던 상황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무렵 기존의 북방 전선을 상당 부분 퇴축·조정시키면서 본토를 중심으로 방어를 강화하던 신라의 전략상 변화를 고려하면, 본래 그러한 한성 고구려국의 신라 영내로의 이동 자체가 신라 측의 제안이나 요구를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 A-④나 B-③과 같이 여러 사료상에서 670년 초반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안승의 신라 내투 및 금마저 안치 등은 실상 위와 같은 673년 윤5월 전투 이후의 상황들을 소급하여 混入시킨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욱 타당할 듯하다.⁵⁰⁾

47) 『신당서』 권220, 列傳145 東夷 高麗 “總章二年 徙高麗民三萬於江淮山南 大長鉗牟岑率衆反 立藏外孫安舜爲王 詔高倨 東州道 李謹行 燕山道 並爲行軍總管討之 遣司平太常伯楊昉綏納亡餘 舜殺鉗牟岑走新羅 倨徙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李謹行破之于發盧河 再戰 俘賊萬計 於是平壤殘不能軍 相率奔新羅 凡四年乃平”

48) 김강훈, 2022, 185-186쪽.

49)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 이후 어느 시점에서 국왕의 권위 확립 등을 위해 안승의 주도로 한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가 이루어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강훈, 2022, 169-170쪽).

50) 손영중, 2000, 151-152쪽 ; 임기환, 2004, 328-336쪽 ; 정선여, 2010, 86-90쪽 ; 최재도, 2015, 159-164쪽 ; 방용철, 2021, 216-218쪽 ; 권창혁, 2021, 180쪽 ; 김강훈, 2022, 185-186쪽.

다만 검모잠의 피살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권 수립 직후인 670년 8월 무렵으로 추정하는 견해(김강훈, 2022, 161-162쪽)와 신라 내투를 전후한 672-673년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하는 견해로 나뉜다(손영중, 2000, 151쪽 ; 최재도, 2015, 160쪽 ; 방용철, 2022, 217-218쪽). 후술하겠지만 한성 고구려국 내부에서도 대체로 안승·고연무와 같은 고위층과 검모잠과 같은 중하층 실력자 사이에 특히 대(對)신라 관계를 둘러싼 인식과 노선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파악한

물론 사료의 서술을 그대로 따라서 이 모두를 670년 초반에 일어난 사건들로 보는 견해들도 아직은 적지 않다.⁵¹⁾ 그러나 그 같은 사료들의 서술 방식 등을 다시금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는 아마도 B-③ 등의 경우처럼 하나의 기사 중에 장기간에 걸친 사건의 경과를 일괄하여 기술하고 또한 여러 다양한 전거를 수합·반영하는 과정에서 杜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⁵²⁾ 아울러 여타 정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정권 성립 직후인 670년부터 이미 주요 인사가 살해되고 국왕이 타국 영내로 망명할 정도로 내분 및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이후 서북방면의 현지에는 사실상 수뇌부가 와해된 잔여 세력만이 남은 채로 신라와 연계를 유지하거나 당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으리라는 의미가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면이 많기 때문이다.⁵³⁾ 즉 안승은 670년 즉위한 이래 한성 고구려국의 국왕으로서 673년 무렵까지도 평양·한성 등지의 고구려고지에 머물면서 부흥 운동을 지도하였으나, 673년 윤5월의 결정적인 패전 이후 살아남은 한성 고구려국의 잔여 세력(아마도 4,000여 호 남짓 규모의)을 인솔하여 동맹국인 신라 영내로 이동, 신라 측과의 협의를 거쳐 673년 후반-674년 초반 무렵에야 비로소 금마저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행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74년 9월 신라는 안승에 대하여 ‘보덕왕’으로 다시금 책봉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다면, 실제 그것이 직접적인 대립으로 드러날 만한 상황은 고구려고지를 떠나 신라 영내로 이동해야 했을 673년 이후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안승에 의한 검모잠 살해 시점 역시 후자 쪽의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한다.
- 51) 池内宏, 1960, 261-266쪽 ; 村上四男, 1976, 225-226쪽 ; 김수태, 1994, 347쪽 ; 신은이, 2018, 9-11쪽 ; 신은이, 2023, 111-115쪽 ; 정원주, 2019, 51-53쪽 ; 김수진, 2020, 20-26쪽 ; 井上直樹, 2021, 429-432쪽 ; 植田喜兵成智, 2022, 243-244쪽.
- 52) 권창혁, 2021, 180-182쪽 ; 특히 『통전』·『당회요』 등의 선행하는 문헌들에서는 안승의 검모잠 살해 및 신라 내투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통전』 권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 『당회요』 권73, 安東都護府), 한편 『책부원귀』 장수부에서는 고간 등의 행군편성 이래 장기간의 추이를 서술하면서 명확한 일시는 기재되지 않은 채로 안승의 검모잠 살해 및 망명 관련 내용이 삽입되었다(『책부원귀』 권429, 將帥部90, 拓土 楊防). 최종적으로 이 시점을 670년으로 편년한 것은 다름 아닌 『자치통감』이었다(『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원년 4월). 유통 과정 및 전거 등을 고려하면 아마도 이 『자치통감』에서 앞서의 다양한 전거자료들을 통합하여 편년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본래 장기간의 추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괄 670년의 단일 기사 중에 합쳐서 정리해버린 탓에 杜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 53) 아울러 671년 7월 무렵 작성된 「설인귀서」에서도 고구려 유민들의 활동과 관련한 안승의 행보를 ‘북쪽 해안(北岸)’에 머무르며 신라가 오히려 이를 ‘외부의 원군(外援)’으로 여긴다고 언급하였던 만큼(『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26일 「설인귀서」 “……又高麗安勝 年尚幼冲 遺壑殘郭 生人減半 自懷去就之疑 匪堪襟帶之重 仁貴樓船 竟翼風帆 連旗巡於北岸 矜其舊日傷弓之羽 未忍加兵 恃爲外援 斯何謬也……), 익히 지적된 바와 같이 당시 안승이 신라의 영역 바깥, 즉 고구려고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재차 방증된다(임기환, 2004, 330-331쪽 ; 최재도, 2015, 159쪽 ; 김강훈, 2022, 174-175쪽).

C. (674년 9월) 안승을 책봉하여 報德王으로 삼았다. 【(문무왕) 10년(670)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는데 지금 다시 책봉한 것이다. ‘報德’이라는 말이壽命에 따라 귀의한다는 말 등과 같은지 혹은 지명인지는 알지 못한다.】⁵⁴⁾

기왕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이 674년의 ‘보덕국(왕)’ 책봉은 그 명칭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이전보다도 신라에 대한 종속적인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었다.⁵⁵⁾ 아울러 신라의 입장에서 이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고구려’의 정체성을 가급적 탈색시킴으로서 당 조정과의 외교적인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복안이기도 하였으리라 이해된다.⁵⁶⁾ 즉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과 어느 한쪽이 멸망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극단적인 총력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관념상으로는 당의 천하질서를 수용하되 그 중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한정해서 만큼은 신라의 역내 헤게모니를 인정받는 것이었던 만큼 굳이 필요 이상으로 당 조정을 자극하는 요소는 회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 부흥운동의 기세에 편승하며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적극적·공세적인 북방전략의 결과 도리어 672-673년에 걸쳐 일련의 참패를 맛보았던 신라로서는 당과의 협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진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직전인 674년 1월 무렵에 당 조정에서는 이미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협력 등을 문제 삼아 대규모 행군을 편성하며 전면적인 침공 및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예고하고 있었던 만큼,⁵⁷⁾ 이후 이어진 보덕왕 책봉 조치 역시 그에 대한 신라 측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4)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4년 9월 “封安勝爲報德王【十年 封安勝高句麗王 今再封 不知報德之言 若歸命等耶 或地名耶】

55) 이 ‘報德’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論語』 憲問篇의 ‘곧음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는다(以直報怨 以德報德)’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즉 신라왕이 베푼 은혜를 덕으로 갚으라는 전형적인 시혜자로서의 표현으로 파악된다(조법종, 2015, 113-114쪽). 다른 한편 이를 당의 사례에서 보이나 실제적·정치적 책봉관계인 ‘本國王’과 의례적·이념적 칭호인 ‘德化王’의 개념(金子修一, 2001, 175-176쪽)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李成市, 2014, 233쪽 ; 김강훈, 2022, 188쪽). 그와 같이 본다면 신라는 안승과의 관계에 대해 고구려왕(한성 고구려국) 책봉 시점에서는 ‘본國王’을, 이 보덕국왕 책봉 시점에서는 ‘덕화왕’으로서의 관계 및 대우를 상정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6) 익히 지적된바 671년 작성한 「답설인귀서」에서도 신라 측은 당이 지목했던 한성 고구려국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해당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당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植田喜兵成智, 2023, 107쪽). 그렇다면 ‘한성 고구려국’이라는 실체가 사실상 소멸한 이 674년 시점에서 ‘고구려왕’이라는 기왕의 정체성을 대체하여 굳이 ‘보덕왕’이라는 추상적인 명칭을 다시금 부여한 것 역시도 앞서의 맥락과 같이 숙적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라면 극히 신경질적으로 나오던 당 조정의 반응을 의식한 조치였을 개연성이 상정된다.

57) 『자치통감』 권202, 唐紀18 高宗 上元 원년 1월 壬午 “以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 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討新羅 時新羅王法敏 既納高麗叛衆 又據百濟故地 使人守之 上大怒 詔削法敏官爵 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使歸國”

결과적으로 672-673년의 상황을 거치며 서북방면의 근거지를 대부분 상실한 채 신라 영내로 유입되었던 한성 고구려국의 잔여 세력은 이제 실질적인 전략의 측면에서는 더 이상 활용할 만한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옛 고구려의 공인된 계승자이면서도 신라 ‘대왕’에게 자발적으로 귀의·복속하였다는 이중적인 위상을 가진 존재인 안승을 매개로 삼은 명분 및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가치만이 남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즉 신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본래 서북방면에서 이들 고구려 유민 집단의 군사적 역할(즉 ‘外援’)에 대한 기대감 하에 ‘형제(昆弟)’, ‘이웃나라(隣國)’처럼 열린 상하관계를 내포하되 어느 정도는 대등한 동맹 관계로서의 성격도 남아있었던 것이 670년의 ‘고구려왕’ 책봉이었다. 그러나 673년 이래 그러한 전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라 영내에 고구려 유민들이 대단위로 유입·정착하여 자치를 요구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한 이상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라도 그 주장과의 상하 위계를 다시금 자리매김하며 신라 ‘대왕’ 아래의 번국(제후), 즉 군신관계로의 전환을 꾀해야만 했던 것이 674년의 ‘보덕왕’ 책봉이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674년을 전후하여 보덕국에서는 국왕 안승 스스로도 신라에 대해 ‘臣’을 자칭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도 재차 주목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I. 신문왕 시기 보덕국의 해체와 일통 이념의 구현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군의 한반도 돌입이 본격화된 672-674년 이래 한성 고구려국은 사실상 소멸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D군 사료에서처럼 안승을 위시한 잔여 세력이 호로하(임진강)를 건너 신라 영내로 유입되었던 정황이 나타난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바 戰禍를 피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무장 난민 집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처럼 이질적인 정체성 및 전투력을 유지한 대규모 고구려계 유민 집단의 유입 자체는 신라 측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상정 가능하다. 일례로 식량이나 질병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더하여 문화 및 관습의 차이로 인한 기존 신라 주민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신라로서는 더더욱 영내로 유입되고 있던 이들 고구려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인데, 신라에 의한 보덕국의 형성 및 금마저(익산) 안치를 그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으리라 본다. 즉 이러한 고구려인들은 곧바로 자국민으로 흡수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무분별하게 왕경이나 여타 신라 영역 내에 자유롭게 정착하도록 허용하기도 난망한 일이었다. 따라서 신라 조정에서는 안승 등의 親신라적인 지도층을 매개로 이들 고구려인 집단을 일괄하여 명목상 신라에 복속된 번국의 형태로 편제하는 한편, 금마저라는 특정 변경 지역에 집단적으로 안치하도록 함으로서 통제 혹은 감시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⁵⁸⁾ 아울러 기왕에 익히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이 금마저라는 지역은 무왕 대 이래 백제의 핵심지역으로서 재지세력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기에 고구려인을 새로이 정착시키며 상호 간 견제에 따른 일종의 以夷制夷를 유도했으리라 이해할 여지도 있겠다.⁵⁹⁾ 다소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들 고구려인을 구태여 기존 신라인들의 거주 지역에 정착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빚기보다는, 차라리 비록 새로이 확보하였을지언정 아직은 확실한 통제가 어려웠을 백제고지 방면의 변경으로 보내어 현지의 백제계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양측 모두가 자연히 소모·약화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라로서는 더 나아가 이를 단초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이들 고구려인들을 점차 체제 내로 흡수동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674년 이래 당의 전면 침공이 예고되면서 나당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성급하게 고구려인들을 자극하며 불필요한 내부적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 역시 가급적 피해야만 했다. 그렇기에 적어도 나당전쟁이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깝게 일단락될 때까지는 ‘신라 영내에서 일정 범위의 자치가 허용된 번국’ 으로서의 보덕국이라는 일견 과도기적인 형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678년 당 조정에서는 張文瓘의 간언에 따라 신라 재침공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었는데,⁶⁰⁾ 아마도 그러한 당 측의 동향이 알려짐에 따라 신라에서도 679년에 이르러 왕경의 대대적인 토목공사와 더불어 ‘儀鳳四年皆土’ 명문와를 제작하는 등 영토확장 및 ‘일통’의 달성을 기념하며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⁶¹⁾

그런데 대략 이 무렵부터 그간 보류되어 왔던 보덕국의 처분 문제가 신라 조정 내에서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여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반도 역내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大國’ 으로서의 신라의 위상과 권위를 드러내는 이념적 요소에서 보덕국은 여전히 적지 않은 역할 및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⁶²⁾ 무엇보다도 문무왕 스스로가 이 보덕왕(=고구려왕) 안승을 직

58) 다른 한편 금마저, 즉 익산 일대의 지형적 특성 역시 남북 방면으로는 금강 하류와 만경강의 두 수계 사이에 둘러싸이고 동쪽 방면으로는 금산무주진안 등지의 산간 지역과 인접하였기에 서해안 방면의 해로를 제외하면 공간적인 확장 및 외부와의 연계 등이 어려운 폐쇄적인 형세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조법중, 2015, 115-117쪽). 그렇다면 이 역시도 신라가 보덕국을 안치할 지역으로 굳이 금마저를 택하였던 이유 중 하나로서, 위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이동 및 확장에 대한 제약과 함께 감시·통제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리라 본다.

59) 李基白·李基東, 1982, 299-300쪽; 김수태, 1993, 347-348쪽; 조법중, 2015, 101-114쪽.

60) 『구당서』 권85, 列傳35 張文瓘; 『자치통감』 卷202, 唐紀18 高宗 儀鳳 3년 9월.

61) 최민희, 2002, 7-12쪽; 최민희, 2018, 343-347쪽.

62)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특히 673년경 신라 정계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유신의 유언으로서도 이러한 언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적어도 나당전쟁 시기를 전후해서는 신라 왕실 및 지배층의 공통된 인식으로서 한반도 역내(즉 삼한=삼국) 전반을 아우르는 ‘일통’에 대한 개념과 그 필요성이 점차 형성·대두하기 시작하였으리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김수태, 2014, 54-60쪽).

접 책봉하며 정권 수립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장본인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사를 잇도록 한다(興滅國 繼絕世)’ 라는 정통성 및 도덕적 명분을 공언하기도 했다. 만약 이를 한순간에 뒤집고 자신의 손으로 보덕국을 완전히 없앤다면 막대한 정치적 부담과 권위의 손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과거 나당전쟁 중 신라 측이 「답설인귀서」를 통해 당 측의 ‘食言’ 과 ‘兎死狗烹’ 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보덕국의 처분 여하에 따라 역으로 신라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의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 여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까지 신라가 내세우던 대내외적인 명분들이 상당 부분 무의미한 공염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문무왕 생전에는 이 보덕국의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식이 상정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680년 초에 이루어진 보덕왕 안승과 신라 왕실 간의 國婚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D-①. (문무왕 20년, 680) 3월에 금·은 그릇 및 채색 비단 100단을 보덕왕 안승에게 내려주고 마침내 왕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 【혹은 잡찬 김의관의 딸이라고도 한다.】(대왕이) 내려준 교서에서 이르기를 “人倫의 근본은 부부관계가 우선인 바이고, 王化의 기틀은 후사를 잇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법이다. 왕의 등지가 공허하고 닭울음소리가 마음속에 있으니, 안에서 보필하는 뜻을 오래 비워두고 집안을 일으키는 일을 영영 빠뜨리는 것은 아니 될 일이다. 이제 좋은 때와 좋은 날짜에 삼가 옛 법도를 따라 과인의 조카딸(妹女)을 배필로 삼도록 하나니, 왕은 마땅히 마음과 뜻을 모두 도타이 하여 법식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자손이 극히 무성하여 오래도록 번성하는 것이 반석과도 같게 할지이다.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며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⁶³⁾

D-②. (문무왕 20년, 680) 여름 5월에 고구려왕이 대장군 연무 등으로 하여금 표문을 올려 아뢰기를 “臣 안승이 아뢰옵니다. 대아찬 김관장이 이르러 教旨를 받들어 선포하고 아울러 (대왕의) 외조카딸을 이 미천한 고을(下邑)의 안주인으로 삼으라는 教書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내 4월 15일에 이곳에 이르렀으니 기쁘고 두려운 마음이 서로 섞이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황제(요임금)가 딸을 嬪(순임금)에 내려보내고, 주나라 종실의 공주가 제나라에 가게 된 것은 본디 성스러운 덕을 떨치니 凡才라도 관계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臣은 본래 용렬한 무리로 행실과 능력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요행히 좋은 운수를 맞이하여 성스러운 교화에 몸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매번 특별한 은택을 받으니 보답하고자 하여도 길이 없습니다. 거듭 대왕의 총애(天寵)를 입어 이처럼 가까운 인척이 되는 은택을 내리시니 마침내 무성한 꽃으로 경사스러움을 드러내고 정숙하고 화목한 덕을 이루어서 좋은 달 좋은 때에 누추한 집안으로 시집온다고 하니 억 년 간에도 만나기 힘든 행운을 하루아침에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라던 일은 아니었으나 뜻밖의 기쁨입니다. 어찌 단지 한두 사람의 父兄만이 실로 이러한 은택을 입겠습니까? 선조 이하부터 모두가

6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20년 3월, “三月 以金銀器及雜綵百段 賜報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一云 迺滄金義官之女也】 下教書曰 人倫之本 夫婦攸先 王化之基 繼嗣爲主 王鵲巢位 曠雞鳴在心 不可久空內輔之儀 永闕起家之業 今辰吉日 率順舊章 以寡人妹女爲伉儷 王宜共敦心義 式奉宗祧 克茂子孫 永豐盤石 豈不盛歟 豈不美歟.”

영에로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臣은 아직 教旨를 직접 받지 못하여 감히 직접 朝謁하지는 못하
나,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맡길 바가 없어 삼가 臣의 대장군인 태대형 연무를 보내어 표문을
받들어 아뢰니다.” 라고 하였다.⁶⁴⁾

무엇보다도 이 사료 D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라 ‘대왕’ 과 보덕왕(고구려왕) 사이
의 ‘君臣’ 관계의 설정에 따른 위계질서가 이미 명확하게 자리 잡힌 양상이 드러난다. 즉
D-②에서 안승의 답서 자체를 신하가 군주에게 上奏하는 형식인 ‘表’ 로 지칭할 뿐 아니라
안승 스스로도 ‘臣’ 을 자처하고 있는 점, 아울러 신라왕이 내려준 문서를 ‘教旨·教書’ 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상대를 높이기 위한 修
飾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신라 ‘대왕’ 의 행적을 堯·舜이나 周왕실과 같은 고사상의 聖人
이나 天子들의 행적과도 동일 선상에 놓고 비유하고 있는 점 역시도 그러하다. 이는 즉 당시
의 신라 왕권과 보덕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를 위시하여 신라 왕권이 대내적으로는 어
떠한 위상을 지향하고자 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말하자면 이는 명목상
자치 국가의 외형 자체는 남겨두되 신라 조정에 의해 책봉된 ‘번국의 제후’ 로서 보덕국과
의 군신관계를 한층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보덕국이 마치 옛 ‘王者’ 를
방불케 하는 신라 왕실의 ‘威德’ 과 天下觀을 드러내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서 충실하게 활
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혼인을 매개로 국왕 안승 자신, 더 나아가 후손들까지도
신라 왕실의 친·인척으로서 강하게 결속시키며 그를 포석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진
전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실상 기왕에도 신라는
이러한 전략을 대단히 익숙하게 활용한바 있었다. 즉 과거 가야 諸國 등을 대상으로 했던 정
복흡수의 과정에서도 이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E-①. (법흥왕 9년, 522) 伽倻國의 왕이 사절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이 이찬 비조부의 누이
를 보냈다.⁶⁵⁾

E-②. (529년) … 伽羅國의 왕이 신라 왕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마침내 자식까지 보았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보낼 때 아울러 100명을 시종으로 삼아 보내었는데 받아서 여러 縣에 나누어 두고
신라의 衣冠을 입도록 하였다. 阿利斯等이 그 복식이 바뀐 것을 책망하여 사절을 보내어 불러 모
아 돌아가게 하였다. 신라가 크게 수치로 여겨 (생각을) 바꾸어 왕녀를 되돌아가게 하고자 하여

6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文武王 20년 5월, “夏五月 高句麗王使大將軍延武等上表曰 臣安
勝言 大阿滄金官長至 奉宣教旨 并賜教書 以外生公 爲下邑內主 仍以四月十五日至此 喜懼交懷
罔知攸實 竊以帝女降媾 王姬適齊 本揚聖德 匪關凡才 臣本庸流 行能無算 幸逢昌運 沐浴聖化
每荷殊澤 欲報無階 重蒙天寵 降此姻親 遂即穠華表慶 肅雖成德 吉月令辰 言歸弊館 億載難遇 一
朝獲申 事非望始 喜出意表 豈惟一二父兄 實受其賜 其自先祖已下 寔寵喜之 臣未蒙教旨 不敢
直朝 無任悅豫之至 謹遣臣大將軍太兄延武 奉表以聞.”

6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法興王 9년 3월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
送之”

말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초빙한 바에 따라 우리가 문득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지금 이와 같으니 청컨대 왕녀를 되돌려 보내라” 라고 하였다. 가라국의 己富利知伽【상세하지 않다】가 답하여 말하기를 “합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다시 떨어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식까지 있으니 어찌 버리고 가겠는가?” 라고 하였다. (신라가 이를 빌미로 마침내 그 길목에 있는 刀伽古跛·布那牟羅의 3城을 함락시키고 또 북쪽 국경의 5城도 함락시켰다...66)

E-③. …신라 제30대 법민왕 때에 이르러 용삭 원년(661) 신유 3월 어느 날에 制書를 내리기를 “짐은 伽那國 元君(수로왕)의 9대손이신 仇衝王이 본국에 항복할 때 거느리고 오신 아들인 世宗의 아들인 率友公의 아들인 庶云 잠간의 딸 文明皇后께서 낳으신 바이다. 그러므로 (가야국) 시조는 본인에게 15대 조상이 된다. 그 나라는 이미 일찍이 (신라에) 패한 바 되었으나 그 무덤과 사당은 지금도 여전히 있으므로 宗祧에 합하여 제사를 잇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이에 그 옛 궁궐터에 사절을 보내어 사당 근처의 上田 30頃을 (제사에) 이바지할 비용(供營之資)으로 삼아 王位田이라 호칭하고 本土에 부속하도록 하였다. (수로)왕의 17대손인 廢世 級干이 삼가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주관하며 매년 때맞추어 술과 단술을 빚고 떡과 밥, 차와 과일 등을 여럿 베풀어 제사 지내는 것이 해마다 끊이지 않도록 하였다. …아름답도다, 문무왕【법민왕의 시호이다】께서 선조를 받드니 효성스럽고 또 효성스럽도다. 멸망하여 끊어진 제사를 이어서 다시금 행하였도다...67)

위 사료 E-①·②의 경우 6세기경 법흥왕 시기 대가야(현 고령) 왕실과의 국혼을 가야 지역에 대한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식·확대하는 기회로 삼는 한편, 설령 혼인관계가 과거 되었다더라도 오히려 그를 영토 점령의 명분으로서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편 기왕의 연구 성과에서는 이때의 국혼으로 탄생한 ‘자식’을 곧 대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전하는 ‘道設智王’으로 추정하기도 한다.68) 즉 「단양 적성비」(550년 비정)·「창녕 척경비」(561년 추정) 등 같은 시기 금석문 중에서도 동일인물로 보이는 ‘漚設智’·‘都設智’ 등이 진흥왕을 수행하던 사후부 소속의 관료로 등장하고 있는바, ‘신라에 편입된 귀족(진골)’ 이면서 동시에 ‘대가야 왕실과의 혈연관계 및 정통성’도 갖춘 이 ‘도설지’라는 존재가 신라에 의해 대가야 정복과 점령 통치를 위한 매개체,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傀儡로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69) 물론 더욱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대가야의 국왕이었던

66) 『일본서기』 권17 繼體 23년 3월, “…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讎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女 加羅己富利知伽【未詳】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所經 拔刀伽 古跛 布那牟羅 三城 亦拔北境五城 …”

67) 『삼국유사』 권2, 紀異2 駕洛國記, “… 泊新羅第三十王法敏 龍朔元年辛酉三月日有制曰 朕是伽那國元君九代孫仇衝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率友公之子庶云匪干之女文明皇后 寔生我者 茲故元君於幼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 今尚存 合于宗祧 續乃祀事 仍遣使於黍離之趾 □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 付屬本土 王之十七代孫廢世級干 祇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 奠年年不墜…美矣哉 文武王【法敏王諡也】先奉尊祖 孝乎惟孝 繼泯絕之祀 復行之也 …”

68) 『삼국사기』 권34, 雜志3 地理1 新羅 康州 高靈郡

69) 김태식, 1996, 22026쪽.

‘도설지왕’ 과 신라 판료였던 ‘도설지’ 를 동일 인물로 확정하는 것에는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긴 하다.⁷⁰⁾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라의 대가야 정복 과정에서 정략결혼에 따른 명분의 확보, 그리고 혈연이나 인척관계 등을 매개로 삼은 親신라적 인사의 포섭 및 회유와 같은 다양한 정치·전략적 수단이 동원되었을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상정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

다른 한편 사료 E-③의 경우는 같은 시기 문무왕 스스로가 모계를 통한 가야국(금관국/금관가야, 현 김해) 왕실과의 혈연관계를 공언함과 동시에, 그 시조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후원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를 ‘宗祧’ 에 합하도록 하였다는 언급(合于宗祧)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해서는 통설적으로 수로왕을 비롯한 (금관)가야 계통을 문무왕, 즉 당시 신라 왕실의 조상으로 인정하여 신라의 ‘宗廟’ 에 합쳐서 제사하도록 한 조치로 이해하곤 한다.⁷¹⁾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신라가 아닌 가야의 종묘 혹은 사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며,⁷²⁾ ‘宗祧’ 를 용례 상 명확한 제도 혹은 건축물로서의 종묘는 아닌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世代나 王系 자체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 ‘合于宗祧’ 는 수로왕 이래 (금관)가야의 역대 왕계 전체를 일괄 합쳐서 수로왕릉 인근에서 제사를 다시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해준 정도의 의미로서 파악된다.⁷³⁾ 그러나 해당 사료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한다면, ‘宗祧’ 가 말그대로 왕실의 世系를 의미하는 관념적인 표현일 경우 오히려 신라 왕실, 정확하게는 무열왕-문무왕으로 대표되는 중대 왕실의 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남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것이 단순히 가야 역대 왕대를 일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면, 앞뒤로 굳이 가야 왕실과 신라 왕실(=문무왕)과의 同祖 同根의 一家로서의 혈연관계를 몇 차례나 강조할 이유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合于宗祧’ 란 익히 알려진 김유신 가문과의 通婚을 통한 친속관계를 매개로 그들이 보유하던 (금관)가야의 혈통과 정통성까지도 신라 왕실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이식·통합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한 반도 역내에 존재했던 모든 세력을 복속·통합하고 그 ‘興亡繼絶’ 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최상위의 존재로서 자리 잡은 신라 왕실의 威德을 과시하려는 의도 역시 함께 작용하였으리라 지적될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⁷⁴⁾

다소 논의가 장황해졌지만 이러한 과거의 사례들은 결국 보덕국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연속선상에서 적용되는 요소들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요컨대 신라는 안승과의 국혼 및 친족 관계의 설정을 통해 보덕국의 핵심 집단을 친신라적 인사로 포섭하는 한편, 더 나아가 향후 장기적·점진적으로 그들이 담보하던 옛 고구려의 정통성(즉 ‘宗祧’)까지도 신라 왕실 계통

70) 이재환, 2022, 213-214쪽.

71) 채미하, 2008, 123-129쪽 ; 채미하, 2015, 429-430쪽.

72) 김태식, 1999, 43쪽 ; 박남수, 2016, 303-304쪽.

73) 박초롱, 2017, 127-131쪽.

74) 박남수, 2016, 303-309쪽 ; 박초롱, 2017, 137-139쪽.

을 이루는 한 부분, 즉 ‘一家’로서 온전히 이식·귀속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 및 명분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익히 지적되었던바 여기에는 건국 이래 진한 소국이나 가야제국 등의 주변 세력을 흡수·통합하며 성장해 왔던 과거 신라 역사상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총 동원되었던 셈이다.⁷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무왕대의 보덕국 통합 정책이란 명목상 영내에서 자치를 행하는 藩國으로서 보덕국의 외형 자체는 남겨두되, 정략결혼 등을 통한 장기적·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런데 681년 문무왕의 사망과 신문왕의 즉위를 계기로 신라의 對보덕국 정책 기조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문무왕대건 신문왕대건 언젠가 보덕국을 신라의 체제 내로 완전히 통합한다는 목표는 마찬가지였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신문왕대에 들어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층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조치가 추진되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즉 신문왕대에는 이 보덕국에 대하여 번국으로서의 외형조차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해체·흡수하면서 국왕 안승 이하 고위층 핵심 집단은 신라의 官僚로서, 그 주민들은 신라의 公民으로서 직접 편입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기왕에 논의되어 왔던 것처럼, 신문왕대에 들어서는 왕권 강화 정책 및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확립, 그리고 그에 발맞춘 제도적 개혁이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제들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⁷⁶⁾ 관련하여 당시 신라 국가 내부적으로도 골품 귀족과 같이 타고난 지위에 기반을 두었던 전통적인 특권을 억누르는 반면, 초월적이고 신성한 왕권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일률적으로 서열화 된 조직체계에 편제되어 복무·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료로서의 역할과 능력이 새로이 요구되는 이른바 ‘(귀족의) 관료화’로 지칭할 수 있는 양상이 대두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⁷⁷⁾ 이는 특히 그러한 정치적 방향성에 가장 반발하는 舊세대 진골 귀족 세력이었으리라 추정되는 김흠돌 및 김군관 등을 진압·숙청(681.8)하면서 内外와 四方에 널리 포고하였던 아래 敎書의 문맥상에서도 면면히 드러나는 기조이기도 했다.

F-①. … 賊의 우두머리 흠돌과 흥원, 진공 등은 官位에 제주로서 나아간 것도 아니고 官職도 실로 은혜를 입어 올라간 것인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극진히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75) 村上四男, 1978, 67-68쪽 ; 이미경, 2015, 22-23쪽.

76) 이를 흔히 ‘전제왕권’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거나(이기백, 1974, 102-111쪽 ; 김수태, 1996, 1-7쪽), 혹은 ‘중앙집권적 (귀족)관료제 or 지배체제’ 등의 용어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영하, 2004, 35-40쪽 ; 하일식, 2006, 298-309쪽 ; 한준수, 2012., 12-14쪽). 물론 이른바 ‘중대 전제왕권론’의 세부적인 개념 설정 및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논쟁과 비판이 있어왔다(해당 주제에 관한 상세한 연구사는 이영호, 1996, 「신라 집사부의 설치와 중시」, 『국사관논총』 69 ; 하일식, 2006등의 여러 논저 참조 바람). 다만 그럼에도 어떠한 대안적인 용어로 규정하건 문무-신문왕 시기에 이르러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왕권강화 및 중앙집권·관료화를 지향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것이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자체는 분명 신라 정치사의 측면에 있어 여러 연구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77) 이기백, 1974, 166-167쪽 ; 김수태, 1996, 15쪽 ; 박명호, 2008, 59-69쪽.

또한 어질고 의롭지 못하여 마음대로 복과 위세를 지어내고 거만하게 官僚들을 업신여기며 윗사람을 속이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였다. …78)

F-②. … 윗사람을 섬기는 법도는 충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관직을 맡은 자의 의리는 두 마음이 없는 것을 으뜸으로 한다. 兵部令 伊滄 군관은 班序로 말미암아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라 갔는데도, 능히 (임금을) 拾遺하여 빠진 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조정에 결백한 절개를 나타내지도 못하였으며, (나랏일에) 목숨을 맡기고 몸을 잊어 社稷에 진실한 정성을 드러내지도 못하였다. 이에 賊臣 흉동 등과 더불어 사귀면서 그들이 반역을 꾸미는 일을 알면서도 일찍이 고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고 公義를 위해 순절할 뜻도 저버린 것이다. 어찌 宰輔의 무거운 자리에 두어 나라의 規범(憲章)을 더럽히겠는가? 마땅히 무리와 함께 내쳐서 後進에게 懲誡토록 할 것이다. … 멀고 가까운 곳에 布告하여 모든 이가 알게 하라.79)

그런데 이러한 신문왕대 중앙 政界의 큰 흐름을 고려한다면 보덕국과 그 국왕 안승 역시도 왕권 중심의 일원적인 중앙집권화·관료제 확립이라는 당대 신라 조정의 지상 명제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설령 아무리 신라 ‘대왕’에 복속된 신하(제후)를 자처할지언정 보덕국의 존재 자체는 영내 자치가 허용된 특수한 위상으로 인해 정착한 고구려계 주민들에게 있어 이미 사라진 고국의 기억과 정체성을 계속 떠올리고 유지하도록 하는 최후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674년경부터 보덕국(왕)으로의 책봉을 통해 신라 ‘대왕’의 신하로서의 종속적인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며 ‘고구려’의 기존 정체성을 상당 부분 탈색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진 했다. 그러나 해당 사료(D-②)처럼 신라 측의 공식 기록에서조차 ‘보덕왕’과 ‘고구려왕’의 직함 표기가 서로 혼용되고 있을 만큼, 그러한 ‘고구려’로서의 기억과 정체성 자체는 결코 쉽게 탈색되는 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본 측의 인식이 반영되었을 여지도 있긴 하지만, 같은 시기 일본과의 외교 활동에서도 보덕국이 ‘고려(고구려)’를 자칭하며 또한 일본이나 신라 등의 타국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신라라는 단일한 패권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역내의 ‘일통’을 완성하며, 대내적으로는 초월화·신성화된 왕권과 그를 보좌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구축한다는 이 시기 신라 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 아래서는 결국 늦든 빠르든 보덕국은 해체되어 국가의 일원적인 통치 질서의 일부로서 완전히 흡수되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히나 즉위 직후부터 김흠돌의 난과 같이 왕권에 대한 반발과 도전을 실제로 경험하

78)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16일 “… 賊首欽突興元眞功等 位非才進 職實恩升 不能克慎始終 保全富貴 而乃不仁不義 作福作威 侮慢官寮 欺凌上下 ….”

79)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28일, “…事上之規 盡忠為本 居官之義 不二為宗 兵部令伊滄軍官 因緣班序 遂升上位 不能拾遺 補闕效素 節於朝廷 授命忘軀 表丹誠於社稷 乃與賊臣欽突等交涉 知其逆事 曾不告言 既無憂國之心 更絕徇公之志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 宜與衆弃 以懲後進 … 布告遠近 使共知之.”

였던 신문왕의 개인적인 동기로서도, 더더욱 보덕국의 해체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한층 근본적으로, 그리고 조금하게 추진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상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⁸⁰⁾

다른 한편으로 보덕국의 해체는 무엇보다도 對唐 관계의 개선과 그를 통한 국제 정세상의 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타협점의 제시로도 이해된다.⁸¹⁾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지만, 676년 나당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적어도 678년 무렵까지도 이어지면서 신라와 당의 관계는 소원한 채 냉각기가 지속되었다.⁸²⁾ 당연하게도 신라로서는 당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긴장을 언제까지고 유지하는 것은 심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 전쟁 당사자였던 문무왕의 사망과 新王의 즉위를 계기로 신라 측에서 먼저 대당 관계의 복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과거 675년 시점에 이미 신라 측의 ‘사죄와 공물’을 관대히 받아들여 삭제했던 문무왕의 관작을 복구해줌으로써 나당전쟁 자체도 그대로 종결되었다는 것이 여러 기록에서 보이는 당 조정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다.⁸³⁾ 이를 감안한다면 당시 신라의 외교적 접근이 당 측의 일정한 호응을 이끌어낼 여지도 아직 남아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신문왕 즉위 시에 冊立 및 관작의 承襲을 위해 당 사절이 왕래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⁸⁴⁾ 대당 관계 복구를 위한 신라의 노력에 성과가 아주 全無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보덕국의 존재가 양국 간의 쟁점이자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다시금 떠올릴 여지가 큰 상황이었다. 실상 고구려 관련 문제란 그것이 상징적인 측면에서건 실질적인 측면에서건 당 조정에서는 禁句에 가까울 정도로 언제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사안이었다.⁸⁵⁾

80) 관련하여 김흠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덕국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있으나(김수태, 1996, 30쪽; 최홍조, 1999, 「신문왕대 김흠돌 난의 재검토」, 『대구사학』 58, 23-27쪽), 그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기에 단언하기는 힘들다. 실상 상술한 바와 같이, 설령 보덕국이 반란 자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더라도 중앙집권적 질서의 확립이라는 신문왕대의 정치적 지향 아래 그대로 존속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위 견해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반란의 후속 처리가 미처 완결되지도 않은 8월 13일부터 보덕국에서는 굳이 사절까지 파견해가며 신문왕에 대한 일종의 ‘충성 맹세’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보덕국에서도 그러한 신라 조정의 내부 동향을 감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정황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81) 植田喜兵成智, 2022, 257-263쪽; 植田喜兵成智, 2023, 107-109쪽.

82) 古畑徹, 1983, 14-20쪽; 서영교, 2006, 305-310쪽.

83) 『구당서』 권5, 高宗本紀 下 上元 2년 2월, “二月 雞林道行軍大總管大破新羅之衆於七重城 斬獲甚衆 新羅遣使入朝獻方物 伏罪 赦之 復其王金法敏官爵.”; 『新唐書』 권220, 列傳145 東夷 新羅, “…上元二年 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 法敏遣使入朝謝罪 貢篚相望 仁問乃還 辭王 詔復法敏官爵…”

84)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원년 즉위기사; 『책부원귀』 권964, 外臣部9 封冊2 開耀 원년 10월

85) 아울러 비슷한 시기(680-681년경) 과거 고구려 유민들의 안집(安集)을 위해 요동 방면으로 파견되었던 보장왕의 반란 시도가 발각되었던 사건(『구당서』 권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삼국사기』 권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附 儀鳳 2년 2월)으로 인해 고구려 부흥운동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던 만큼, 그에 따라 고구려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한 당 조정의 태도와 대응이 더욱 민감하게 경직되었을 뿐 아니라 신라와의 관

그러한 만큼 신라가 보덕국-엄연히 고구려 그 자체인-을 자국 영내에 두고 비호하는 양상은 비록 당이 한반도 방면의 정세에 직접 개입할만한 힘과 의지가 아무리 쇠퇴하였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리라 짐작 가능하다.

물론 이 시기 당이 신라 측에 보덕국의 소멸을 종용·압박했는지는 명시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과연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라가 발휘하던 정보력을 감안하면 당 조정 내부의 그러한 기조나 반응을 어느 정도 미리 인지하고는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여러 차례 논급한바 보덕국은 신라에게 있어서도 그 거취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dilemma)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즉 보덕국은 단순히 고구려 유민 집단에 대한 대응과 통제 차원을 넘어, 이미 대내외적으로 삼한, 즉 한반도 전역에 걸친 신라 국가의 威德을 드러내는 이념적 장치이자 고구려의 정통성을 신라 왕실의 系譜에 온전히 귀속·이식시키는 담보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무열왕의 ‘일통’을 현창하던 ‘太宗’ 칭호와 관련 당 측에서 참람하다고 신라 측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도 실상 이 681년 무렵(당 고종 개요 원년) 신문왕의 冊立使가 왕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다는 견해가 통설적이다.⁸⁶⁾ 어쩌면 이 역시도 상호 연관된 사안으로서, 당 측에서 신라와의 관계 개선에 앞서 일종의 ‘길들이기’, 혹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굳이 ‘몽니’를 부리며 신라의 국제적 위상 및 한반도 역내의 헤게모니를 흔들려 보려는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러한 대외 현안들의 대처 여하에 따라 자칫 중대 왕실의 내적인 권위와 집권 명분까지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셈이다.⁸⁷⁾ 말하자면 당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정세 안정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그들의 태도를 맞이하여 기존에 신라 국가 및 왕실의 권위를 提高·修飾하던 보덕

계에서도 일정한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86) 이 ‘태종’ 칭호와 관련된 나당 간의 논쟁 사건은 『삼국사기』에서는 692년(신라 신문왕 12) 중의 어느 시기로서 문제 제기의 주체 또한 ‘당 중종(재위 684 ; 복위 705-710)의 구척(口勅)’이라 전하며(『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12년 봄), 한편 『삼국유사』에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당 고종대(재위 649-683)로 전하여 분명한 차이가 있다(『三國遺事』 권1, 기이 태종춘추공). 그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삼국사기』에 의거 이를 692년 시점의 사건으로 그대로 인정하거나(金子修一, 2001, 10-11쪽 ; 김영하, 2010, 316-317쪽 ; 안주홍, 2021, 340-343쪽), 혹은 681년과 692년의 두 차례에 걸쳐 재론(再論)되었다고 보거나(김수태, 1999, 673-674쪽 ; 서영교, 2006, 227-231쪽 ; 박남수, 2016, 290-291쪽), 혹은 『삼국유사』를 신뢰하여 당 고종이 아직 생존해 있던 681-682년 무렵에 신라에 도착했던 신문왕의 책립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수정하여 이해하는 등(황윤룡, 1982, 17-18쪽 ; 권덕영, 2005, 97쪽 ; 채미하, 2008, 163-165쪽 ; 김중복, 2016, 4-6쪽)의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김유신의 위업 현장을 목적으로 9세기 무렵 후대의 인식을 소급시킨 허구적 설화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견해도 있다(윤경진, 2013, 234-238쪽). 그러나 위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무렵 나당관계상의 국제적 여건이나 각각의 내부 정치적 사정 및 동기 등을 고려한다면 기왕의 다수설과 같이 당 고종 말년 시점에 관계 복구를 시도하던 신라 측에 외교적 압박을 가한 사건으로 파악하는 편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87) 서영교, 2009, 230-231쪽.

국과 같은 요소들까지도 일정 부분 해체·격하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고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G. (683년, 신문왕 3) 겨울 10월에 보덕왕 안승을 불러 蘇判으로 삼고 金氏를 賜姓하며 京都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크고 넓은 저택(甲第)과 좋은 토지(良田)를 내려주었다.⁸⁸⁾

그렇기에 위 사료 G와 같이 683년 10월 마침내 보덕국왕 안승을 왕경으로 소환하며 관등 사여 및 賜姓과 함께 신라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편입시켰던 조치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여지가 있겠다. 즉 이는 ‘일통’을 상징하는 대내적인 권위를 가급적 온존한 채 고구려 지배층 및 그들의 계통과 정통성 자체를 우대·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외형상 일단 보덕국(즉 고구려)의 실체와 그 대외적인 의미를 소멸시킴으로서 향후 당 측이 문제를 제기할 맥락을 선제적으로 봉쇄하여 상기의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타협책이었다.⁸⁹⁾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과거 전쟁 시기의 과도기적 잔재를 청산하면서 오로지 신라라는 단일한 국가와 왕실만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의 확립이라는 과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以夷制夷를 의도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사료 G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보덕국 내부의 親신라 세력과 反신라 세력 사이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면서 이듬해의 대규모 반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기폭제로도 작용하였다. 관련하여 우선 국왕 안승을 왕경으로 소환한 시점을 전후하여, ‘고구려민’을 병력원으로 삼는 왕경 군단인 黃衿誓幢 등이 급거 신규 창설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는 나당전쟁이 한창이던 문무왕 12년(672) 이래로 약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H. … (9서당 중에) 5번째는 黃衿誓幢으로 신문왕 3년(683)에 高句麗民으로서 군단(幢)을 만들었다. 옷깃(衿)의 색깔은 黃赤이다. 6번째는 黑衿誓幢으로 신문왕 3년에 靺鞨國民으로 군단을 만들었다. 옷깃의 색깔은 黑赤이다. …⁹⁰⁾

88)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3년 10월, “冬十月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89) 植田喜兵成智, 2022, 262-263쪽; 植田喜兵成智, 2023, 109쪽.

90)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 五曰黃衿誓幢 神文王三年 以高句麗民爲幢 衿色黃赤 六曰黑衿誓幢 神文王三年 以靺鞨國民爲幢 衿色黑赤 ….”; 한편 이 당시 황금서당과 함께 창설된 黑衿誓幢의 ‘말갈(국)민’에 대해서는 과거 나당전쟁 당시 당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말갈병의 포로 및 잔류인원으로 보거나(末松保和, 1954 『新羅幢考』, 『新羅史の諸門題』, 東洋文庫, 355쪽; 이인철, 2001, 53-54쪽), 현 강원·함경도 등 동북방면에 거주하던 ‘僞靺鞨’ 즉 東濊 계통 주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1999, 195쪽). 혹은 그와 달리 멸망 이후에도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부흥운동에 참여하였던 일부 말갈 집단으로서 673년경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신라 영내로 유입될 당시 함께 유입되었던 인원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는데(서영교, 2006, 165쪽), 이 황금서당이 황금서당과 더불어 683년 시점에 창설되었다는 점이나 상술한바와 같이 이 두 군단의 창설 과정이 동시기 안승 세력의 왕경 소환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자의 견해가 보다 유력하리라 생각된다. 즉 다소 복잡하지만 ‘고구려왕’으로서 안승이 인솔하던 부흥운동 세력 중에는 ‘말갈(국)민’, 즉 말갈 계통의 일부 집

기왕에 여기의 ‘고구려민’의 실체에 대해서는 668년 멸망 시점을 전후하여 고구려에 속해 있던 주민이나 전쟁포로 등으로 파악하거나,⁹¹⁾ 혹은 672-673년 무렵 고구려 부흥운동의 소멸 과정에서 보덕국(안승)과는 계열을 달리하던 별개의 유민 집단으로 파악하는 등,⁹²⁾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된바 있다.

그런데 위 사료 H에 명시된 창설 시기나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거의 같은 시점에 왕경으로 소환되어 정착하였던 안승과 그 지지세력 등이 신라 조정의 어떠한 의도 하에 ‘고구려민’으로서 분류·규정되었던 것으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⁹³⁾ 즉 앞서 신라가 ‘옛 고구려의 정당하고 유일한 계승자’로서 인정하며 ‘고구려왕’으로 책봉했던 존재가 다름아닌 안승이었던만큼, 자연히 그러한 신라 측의 내적인 인식과 논리상에서 ‘고구려민’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고구려왕’ 안승에 부속된 집단이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⁹⁴⁾ 특히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라가 시종일관 이 ‘고구려왕’ 안승에 대한 厚待를 매개로 고구려의 정통성 자체를 이식·흡수하며 중대 왕실의 권위를 수식하려는 이념적 장치로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683년 10월 안승이 왕경으로 소환되었을 때 안승 개인만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측근 및 親신라 성향의 보덕국 내 고위층 인사들과 다수의 수행인원·호위병력·추종자 등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고구려왕’을 따라 歸附한 ‘고구려민’으로 간주된 이들 집단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신라 국가체제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미에서 신규 군단인 ‘황금서당’의 편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황금서당’의 步騎監(4인/11위 나마-13위 사지)으로서 첫 실전에 투입되었던 金令胤과 같은 사례를 감안하면, 원활한 통제 겸 감시를 위해서라도 군단 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단위부대의 중간 지휘관이나 핵심 참모진 등은 상당 부분 신라인 군관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시기 당에서는 복속된 이민족 출신의 番將들에게 南衛禁軍의 지휘관인 諸衛將軍의 관직을 수여하며 활용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⁹⁵⁾ 그와 유사하게 신라 역시도 상징적·이념적인 의미에서 안승을 위시한 ‘고구려민’ 출신의 관료들을 황금서당의 고위 지휘관, 혹은 특별히 員外·散職과 같은 형태로 임명하였을 개연성도 있겠다.⁹⁶⁾

단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673년경 안승의 신라 내투를 계기로 이들 역시 보덕국 내에 정착하였다가 683년에 이르러 안승의 지지세력인 ‘고구려민’과 더불어 왕경으로 이동하면서 황금·흑금서당의 2개 군단으로 신규 편성되었던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겠다.

91) 末松保和, 1954, 354쪽; 노중국, 1999, 194쪽.

92) 임기환, 2004, 349-350쪽; 서영교, 2009, 231-232쪽.

93) 정선여, 2010, 94-95쪽; 정선여, 2013, 45쪽; 정원주, 2019, 75-76쪽.

94) 정선여, 2010, 95-96쪽; 정원주, 2019, 76-77쪽.

95) 이기찬, 2012, 68-72쪽.

96) 한편 동시기 좌평 忠常·常永 등 신라에 투항한 백제 출신의 고위 인사가 장군·대감 등의 군사지휘관을 역임한 사례의 존재(『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 11월 22일), 그리고 9서당 소속 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민’ 과 대비하여 신라 조정의 소환에 불응한 채로 여전히 금마저에 잔류하였던 집단, 이른바 ‘보덕성민’ 도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9서당 소속 군단(백금·적금서당)으로 편성되었던 비율(2 : 1)로 추정하면, 오히려 이쪽이 2배 이상의 다수파였지 않을까 한다. 당연하겠지만 이들은 보덕국의 완전한 해체·흡수를 의도하던 신라 조정과 여기에 충실히 부응하였던 안승 등의 親신라 성향 ‘고구려민’ 과는 달리, 기존 고구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치공간으로서의 보덕국의 존치를 원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는 과거 한성 고구려국 내부에서의 안승 세력과 검모잠 세력의 대립에서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갈등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도 보덕국 자체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일단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갈등은, 683년 신라의 조치로 인한 ‘고구려왕’ 안승이라는 구심점의 소실을 계기로 삼아 684년 11월 대규모 반란으로 폭발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I-①. (신문왕 4년, 684) 11월에 안승의 族子인 將軍 大文이 금마저에 머무르면서 반란을 꾀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남은 이들은 대문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는 (신라의) 관리들을 살해하고 성읍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將士들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幢主 逼實이 (보덕성민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州郡으로 옮겼으며 그 땅을 金馬郡으로 삼았다. 【大文은 혹은 悉伏이라고도 한다.】⁹⁷⁾

I-②. … 文明 원년(684) 甲申에 고구려의 殘賊이 報德城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신문대왕이 장수들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니 逼實도 貴幢의 弟監(5인/13위 사지-10위 대나마)으로 삼았다. (뱀살이) 行軍에 임하여 그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 두 형님들은 모두 王事に 죽어서 不朽의 명성이 남았다. 내가 비록 불초하나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구차히 살아남겠는가? 오늘 그대와 살아서 이별하지만 끝내 죽어서 이별하게 될 것이니, 상심하지 말고 잘 살라” 라고 하였다. 적진과 대치함에 이르러 홀로 나아가 힘껏 공격하여 수십 명을 베고는 죽었다. …⁹⁸⁾

I-③. 김영운은 沙梁 사람으로 級滄 盤屈의 아들이며 할아버지는 欽春【혹은 欽純이라고도 한다】 角干이다. … (김)영운은 世家에서 자라나 명예와 절개를 자부하였다. 신문대왕 때에 고구려의 殘賊 悉伏이 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명으로 토벌하였는데 이에 (김)영운을 黃衿誓幢의 步騎監으로 삼았다. 장차 行軍할 때에 (김)영운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번에 가면 宗族과 朋友으로 하여금 나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悉伏이 椴岑城 남쪽 7리

의 병종 구성에는 騎射가 가능한 馬兵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9서당 소속 군단의 지휘부 및 주요 군관직에는 原신라인 뿐 아니라 해당 이민족 집단 중 사회경제적 상류층도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리라 추정한 견해도 최근 제기된 바 있다(최상기, 2022, 70-83쪽).

97)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4년 11월, “十一月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潛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鬪幢主逼實死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爲金馬郡【大文或云悉伏】”

98) 『삼국사기』 권47, 列傳7 驛徒 附 逼實, “… 文明元年 甲申 高句麗殘賊 據報德城而叛 神文大王命將討之 以逼實爲貴幢弟監 臨行謂其婦曰 吾二兄既死於王事 名垂不朽 吾雖不肖 何得畏死而苟存乎 今日與爾生離 終是死別也 好住無傷 及對陣 獨出奮擊 斬殺數十人而死 …”

지금까지 나와서 진(陳)을 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금 이 흉악한 우리들은 비유컨대 천막 위에 제비등지를 들고 숲 안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것과 같으니 나아가 만 번 죽을힘을 다해 다투어도 하루살이 목숨일 뿐이다. 옛말에 궁지에 몰린 도적은 꺾박하지 말라고도 하니, 마땅히 조금 물러나 (적의) 피로가 극도에 달하기를 기다려 친다면 가히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그 말을 옳다 여겨 잠시 물러났는데, (김)영운만이 홀로 수궁치 아니하고 싸우고자 하였다. … (김)영운이 말하기를 “싸움터에 임하여 용기가 없는 것은 禮經에서 경계하는 바이고, 나아감만 있고 후퇴가 없는 것은 士卒의 마땅한 본분이다. 사내가 일에 임함에 스스로 결정할 뿐이지 어찌 반드시 무리를 따르겠는가?” 라고 하고는 마침내 적진에 나아가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99)

I-④. … (9서당 중에) 7번째는 碧衿誓幢으로 신문왕 6년(686)에 報德城民으로 군단(幢)을 만들었다. 옷깃(衿)의 색깔은 碧黃이다. 8번째는 赤衿誓幢으로 신문왕 6년(686)에 또 보덕성민으로 군단을 만들었다. 옷깃의 색깔은 赤黑이다. …100)

그런데 위 사료 I군, 즉 신라 측의 공식 기록들에서는 이처럼 금마저에 잔류한 유민 집단에 대해 ‘국가’로서의 성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보덕성민(報德城民)’ 혹은 ‘고구려잔적(高句麗殘賊)’ 등으로 격하하여 지칭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앞서 살펴본바 신라 국가의 일부로 귀의(歸依)한 존재인 ‘고구려왕’ 과 ‘고구려민’ 에 대비하여, 단지 ‘잔당 수준의 도적 무리(-殘賊)’ 이자 ‘일개 성읍에 응거하는 지방민(-城民)’ 에 불과한 존재로서, 그 정체성 및 정당성을 박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시 신라 조정에 있어서 이 684년의 무력 충돌이란 신라와 보덕국(혹은 고구려)이라는 국가간의 ‘전쟁’ 이 아니라, 단지 신라 내부에서의 ‘토벌’ 혹은 ‘진압’ 일 뿐이었다고 그 의미를 가급적 축소 및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위 사료 I군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683년 10월 안승 및 ‘고구려민’ 이 왕경으로 소환되어 정착한 이래, 신라는 옛 보덕국의 해체 및 직할 영역으로의 편제 작업의 완료를 위해 일군의 ‘官吏’ 들을 파견하여 통제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금마저에 잔류한 나머지 유민 집단은 ‘안승의 族子’ 이자 ‘將軍’ 이라고 전하는 大文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그러한 신라의 통제에 저항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옛 국왕 안승의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족으로서의 혈연적 정통성이나 ‘장군’ 으로서의 군사적 실력자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으리라 추정된다.101) 신라 조정으로서는 이 같은

99) 『삼국사기』 권47, 列傳7 金令胤, “金令胤 沙梁人 級滄盤屈之子 祖欽春【或云欽純】角干 … 令胤生長世家 以名節自許 神文大王時 高句麗殘賊悉伏 以報德城叛 王命討之 以令胤爲黃衿誓幢步騎監 將行 謂人曰 吾此行也 不使宗族朋友聞其惡聲 及見悉伏出椶岑城南七里 結陳以待之 或告曰 今此凶黨 譬如鷲巢幕上魚戲鼎中 出萬死以爭一日之命耳 語曰 窮寇勿迫 宜左次以待疲極而擊之 可不血刃而擒也 諸將然其言 暫退 獨令胤不肯之而欲戰 … 令胤曰 臨陣無勇 禮經之所誡 有進無退 士卒之常分也 丈夫臨事自決 何必從衆 遂赴敵陣 格鬪而死 …”

100) 『삼국사기』 권40, 雜志9 職官 下 武官 凡軍號, “… 七曰碧衿誓幢 神文王六年 以報德城民爲幢 衿色碧黃 八曰赤衿誓幢 神文王六年 又以報德城民爲幢 衿色赤黑 …”

‘보덕성민’들의 불온한 동향을 용납하기 어려웠음이 분명하지만, 굳이 대문의 반역 혐의가 직접적으로 발각될 때까지 약 1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대응 없이 방치하였던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다. 어쩌면 금마저 일원에 잔류하고자 했던 ‘보덕성민’들의 숫자가 많을 뿐더러 자치권의 박탈에 대한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지도 모른다. 혹은 그 같은 反신라 성향의 인물들을 일거에 색출소탕할 수 있도록 馬脚을 드러낼 때까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긴 힘들 것이다.

다만 이 대문의 공개적인 처형은 주민들을 憤激시키면서 관리를 살해하고 금마저 및 주변 지역까지 점거하는 대규모 무장봉기로 飛火되었다. 정황상 이는 양측 어느 쪽에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사태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 조정으로서는 一罰百戒의 강경책으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反신라 세력의 준동을 억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조급함으로 인해 惡手를 두면서 더욱 큰 피해와 더불어 苦戰을 자초하였던 셈이다.¹⁰²⁾ 반대로 실복 등의 보덕성민들로서는 격분한 주민들의 봉기에 편승하여 일단 관리들을 살해하고 ‘城邑’, 즉 금마저 일대를 장악하였으나 이후 필연적으로 들이닥칠 신라 조정의 토벌군으로부터 당장의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을 것이다. 근래에도 익히 지적되었던바, 위 사료 I-③에 보이는 것처럼 이들이 보덕성(금마저)을 떠나 과거 백제-신라 간의 접경 요충지였던 椴峯城 인근에서 ‘結陣’하여 신라군을 맞이하였던 것 역시 그 일환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겠다.¹⁰³⁾ 즉 반란 직후 이들 보덕성민의 움직임이란, 보덕국(고구려)의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 신라 조정의 영향권을 탈출하여 원 본거지였던 서북방면(한성)이나 요동 등지로의 귀환을 도모한 것이라 추정할 견해도 있었던 것이다.¹⁰⁴⁾ 더 나아가 신라의 여러 주둔 군단(停) 및 지방행정 단위 등을 돌파해야 하는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 및 육상 교통로

101) 서영교, 2009, 237쪽 ; 정선여, 2013, 45-46쪽. 한편 위 사료 I-①(신라본기)에서는 ‘대문’과 ‘실복’이 동일인물이라는 夾註가 부기되어 있으나, 그와 달리 사료 I-③(열전)에서는 ‘대문’의 처형 시점 이후에도 ‘실복’이 별도의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양상으로 볼 때 이 I-①의 협주는 본기 찬술자의 착오로서 ‘대문’과 ‘실복’은 동일 인물이 아니었음이 명확하다(정구복 외, 2012, 807-808쪽). 추정하자면 안승을 대체할 왕족으로서 금마저에 잔류하던 ‘보덕성민’의 구심점이었던 ‘대문’이 처형된 이후, 그와 어떠한 관계가 있던 별개 인물인 ‘실복’이 반란의 지도자로서 새로이 부각되면서 후대의 전승에 혼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102) 서영교, 2009, 237-238쪽.

103) 이 가잠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과거 진평왕대부터 벌어졌던 백제-신라 간의 교전 양상과도 연관되면서 크게 나누었을 때 안성 죽산 등지의 경기도 방면(김태식, 1997 ; 김수태, 2007 ; 김창석, 2009), 진천-괴산-보은-청주 등지의 미호천 및 금강 상류 방면(津田左右吉, 1913 ; 서영일, 1999 ; 문안식, 2006 ; 윤성호, 2018), 금산-영동-무주-완주 등지의 충남-전북 내륙 방면에 걸친 신라-백제 간 접경지대(윤선태, 2010 ; 전덕재, 2013 ; 장창은, 2020 ; 이도학, 2021 ; 정덕기, 2023)와 같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즉 대체로 이 같은 여러 견해들은 가잠성 자체의 전략적 가치 및 그를 둘러싼 1-3차 전투의 맥락을 ‘한강 유역으로의 북상’과 관련시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추풍령 경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 간의 공방전’으로서 이해할 것인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는데, 위 본문 중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684년 보덕성민 반란 당시의 정황 및 지정학적 조건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때의 가잠성 전투는 일단 후자의 맥락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 적절 하리라 본다.

104) 정선여, 2013, 47-51쪽 ; 정원주, 2019, 79-82쪽.

등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왕경(경주)에서 上州 방면을 거쳐 금마저(익산)으로 直功할 수 있는 경로였던 가잠성을 확보하여 신라군을 선제적으로 방어·격퇴함으로써 보덕국 자체의 존속 및 세력 확대를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해로를 통한 신라 영역의 탈출을 지향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¹⁰⁵⁾

물론 이처럼 중간 지점인 가잠성 일대까지 진출했던 실복 등의 반란군은, 귀당·황금서당 등의 중앙군 병력으로 구성된 신라 측의 토벌군을 맞이하여 상당히 선전하였을망정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였다. 그나마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이었던 이들이 와해됨에 따라 금마저의 城邑 자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라는 해당 지역을 직할의 金馬郡으로 편입하고 기존 주민들을 남쪽 변경으로 徙民시키면서 보덕국의 해체를 확정하였다.

신라로서는 이를 통해 나당전쟁 시기 이래로 국내외적으로 부담이 되어오던 자국 영내의 고구려 유민 문제를 비로소 해소하며 체제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보덕국의 해체·흡수가 대대적인 반란과 진압이라는 노골적인 폭력으로 귀결되어 버린 만큼, 그동안에 신라-보덕국 간의 관계상에서 연출해왔던 도덕적 명분과 그에 따른 자발적인 귀속이라는 구도는 당초 구상과는 달리 상당 부분 퇴색이 불가피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 보덕성민의 반란이란 과거 신라가 공식적으로 백제·고구려 양국의 平定을 선언했던 668-669년 이래,¹⁰⁶⁾ 684년 시점까지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遺民’ 들에게는 여전히 옛 고국의 기억과 정체성이 강고하며 계기만 있다면 언제라도 反신라를 기치로 삼은 대규모 반란으로 폭발할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두려운 실상을 입증한 사례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옛 삼국 유민의식의 폭발력을 재인식하게 된 신라 조정로서는 더욱이나 그를 제어하며 중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보덕성민의 반란은 진압되었을망정 그 전후의 처리에 있어 단순한 강경책의 반복은 止揚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록 위 I-① 사료와 같이 남쪽 변경으로의 徙民과 같이 징벌에 가까운 처분도 있었지만,¹⁰⁷⁾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I-④ 사료에도 보이는바 벽금·적금서당

105) 정덕기, 앞의 논문, 2023, 164-173쪽.

10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8년 11월 6일, “率文武臣寮 朝謁先祖廟 告曰 祇承先志 與大唐同舉義兵 問罪於百濟高句麗 元凶伏罪 國步泰靜 敢茲控告 神之聽之” ;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9년 2월 21일, “往者 新羅隔於兩國 北伐西侵 暫無寧歲 … 先王愍百姓之殘害 忘千乘之貴重 越海入朝 請兵絳闕 本欲平定兩國 永無戰鬪 雪累代之深讎 全百姓之殘命 百濟雖平 高句麗未滅 寡人承克定之遺業 終已成之先志 今兩敵既平 四隅靜泰 …”

107) 반란 진압 이후 보덕성민에 대한 사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685년에 신설된 南原小京의 개척(『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神文王 5년 3월)에 동원된 것이 그 실체였다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임병태, 1967, 90-92쪽). 실상 재지기반과 遊離시키며 그 세력에 타격을 준다는 徙民의 기본적인 의의를 감안하면, 애초부터 외부 이주민으로 재지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미약했을 보덕성민을 금마저에서 다시 이주시킨다 한들 과연 징벌로서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는 알기 어렵다. 혹여 684년의 반란 당시 보덕성민 뿐 아니라 금마저 현지의 백제계 주민들과의 연계 및 참여를 추정하는 견해들도 있는 만큼(정선여, 2013, 55쪽 ; 정원주, 2019, 79-81쪽), 어쩌면 보덕성민의 이주 조치는 그들 자체에 대한 직접

의 편성(686)처럼 포섭·회유를 위한 일련의 온건 조치 역시도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686년 중에 옛 고구려 본국의 관품을 헤아려 京官, 즉 신라의 京位 관등을 일괄 사여토록 한 조치도 주목된다.¹⁰⁸⁾ 그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아마도 ‘고구려민’ 뿐만 아니라 ‘보덕성민’ 역시도 포괄하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이쪽이 주안점이었으리라 추정된다.¹⁰⁹⁾ 즉 벽금적금서당과 같은 중앙 군단을 신설하고 그 병력 구성원으로서 이들 보덕성민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과거의 반란 이력에 대한 사면 및 軍官 임용에 따른 관등체계 편입 등의 조치가 선결되어야 했을 것이다. 특히 이 686년의 고구려인 관등 사여가 대체로 일길찬(7위)부터 오지(烏知/15위 大烏, 혹은 16위 小烏로 추정)까지 중하급의 실무 관료, 혹은 소규모 단위부대의 지휘관 정도에 해당하는 신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라 조정은 철저히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인식 아래 복속된 여러 주민 집단의 연혁과 정체성 등을 규정하고 또 재편하고자 하였던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 계통인 집단을 ‘고구려민(황금서당, 683)’ 과 ‘보덕성민(벽금적금서당, 686)’, 그리고 ‘백제민(백금서당, 672)’ 과 ‘백제잔민(청금서당, 687)’ 으로 분할하여 편제하는 양상으로서 관철되었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¹¹⁰⁾ 이는 바로 직전의 보덕성민 반란의 경험과 그를 통한 교훈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것처럼 분할된 여러 주민 집단들을 신라와의 관계 및 충성도와 같은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대우하고 상호 경쟁시킴으로서, 공통적인 연계 및 결집을 막고 중앙의 감시와 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던 책략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이 문제에 있어 신라의 대응이란, 결론적으로는 ‘분할과 지배(Divide and rule)’ 라는古今의 대원칙에 대단히 충실하였던 셈이다.

적인 징벌이라기보다는 고구려계와 백제계 주민 집단 각각을 분리시키고 상호 연대 및 결집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시키기 위한 의미가 더 컸던 것이라 이해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한다.

108) 『삼국사기』 권40, 雜志9 外官, “... 高句麗人位 神文王六年 以高句麗人授京官 量本國官品授之 一古滄 本主簿 ...”

109) 비슷한 맥락에서 안승 등과 더불어 왕경으로 이주했던 ‘고구려민’ 에 대한 포섭 및 신라 관등체계로의 편입 조치는 동시기 황금서당의 창설 시점(683)에서 이미 선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110) 672년 시점에 백금서당으로 편성된 ‘백제민’ 과 687년 시점에 청금서당으로 편성된 ‘백제잔민’ 이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본문에서 논한바 ‘고구려민’ 과 ‘보덕성민’ 과 유사한 관념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기왕에 이 ‘백제잔민’ 은 660년대 사비 함락 이후의 백제 부흥운동이나 670년대 부여읍 휘하 웅진도독부의 축출 과정에서 전쟁포로 혹은 사민 등의 방식으로 신라로 유입된 집단으로서 추정되어 왔는데(末松保和, 1954, 356-357쪽 ; 노중국, 1999, 195-196쪽 ; 서영교, 2006, 164-171쪽), 다만 백금서당(672)과 청금서당(687) 각각의 창설 시점과 그 배경 등을 고려한다면 660-670년대에 걸쳐 신라의 통제 하에 놓인 백제계 주민들의 경우 일괄 ‘백제민=백금서당’ 으로 편제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백제잔민’ 은 그 이후 680년대를 전후한 시점에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백제민’ 과 구분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관련하여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바 684년 보덕성민의 반란 당시의 여러 정황상 금마저 일대 현지의 백제계 주민들도 反신라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여기에 호응했으리라는 견해들이 참고가 된다(정선여, 2013, 55쪽 ; 정원주, 2019, 81쪽). 그렇다면 이 ‘백제잔민’ 이란 적어도 660-670년대 이래 신라에 완전히 복속되어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백제민’ 과는 달리 680년대까지도 反신라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보덕성민의 반란에 연루되었던 금마저 등지의 백제계 주민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겠다.

더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일통’이란, 한반도 역내(삼한)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이자 옛 삼국의 정통성을 모두 포괄하는 신라 중심의 헤게모니 속에 보덕성민(즉 고구려계)를 비롯한 여러 이질적인 주민 집단들을 융화시켜야만 하는 당대 신라 지배층의 수요를 채워줄 이념적 장치로서의 새로운 측면이 재차 인식될 수 있었다.

즉 본래 660년대 무렵까지는 자국을 위협하는 ‘兩敵’을 평정한 聖王 태종무열왕(으로 대표되는 중대 왕실)과 良臣 김유신 등의 위업과 공덕을 顯彰하려는 다분히 신라만의 내부적인 의미에서 ‘일통’의 관념이 출발하였다. 그런데 앞서 2장에서 논하였던 바와 같이, 이는 670년대 이래 나당전쟁을 거치며 당의 기미주 분할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이자 신라의 한반도 역내 헤게모니 장악 및 영토주민의 확보를 정당화하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680년대에는 ‘一家’로서 옛 삼국(=삼한) 전체의 정통성을 포용하며 다양한 피복속민 집단을 신라 중심의 단일한 국가체제의 일원으로 포섭·협조시키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말하자면 이처럼 무열·문무왕대부터 신문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 국가와 왕실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논리와 이념적 기반을 점차 구체적이고 세련되게 발전·완성해가는 일련의 증장기적 과정의 산물이 곧 ‘(삼한)일통’ 이념이었던 것이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7세기대 이래 신라가 그러한 ‘일통’의 면모를 상징, 혹은 구현하고자 했던 양상을 더 살펴볼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L-①. 거문고(玄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신라고기」에서 이르기를, 처음에 췌에서 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악기임을 알았으나 그 소리(聲音)와 연주법을 알지 못하여 國人 중에 능히 그 소리와 연주하는 법을 아는 자를 구하여 후한 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 때 第二相이던 王山岳이 그 본래의 모습을 두되 그 法制를 다소 고치고 바꾸어 만들어내고는 겸하여 100여 곡을 지어서 연주하였다. 이에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추니 마침내 현학금(玄鶴琴)이라 이름하였는데 뒤에 다만 거문고(玄琴)라고만 하였다. …111)

L-②. 天授 4년【즉 長壽 2년(693)이다.】 癸巳 늦은 봄에 (국선 부레랑이) 무리를 거느리고 金蘭(현 통천 일대)으로 놀러왔다가 北溟(溟州)의 경계에 이르러 狄賊에게 붙잡혀 갔다. … 대왕(=효소왕)이 이를 듣고는 놀람과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말하기를 “선왕께서 神笛(만파식적)을 얻으셔서 이 몸에게까지 전하니 지금 거문고(玄琴)와 같이 內庫에 두었는데, 어인 일로 國仙이 문득 적의 포로가 되었는가?” 라고 하였다. 【거문고와 피리에 관한 일은 다른 기록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때에 상서로운 구름이 天尊庫를 덮으니 왕이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창고 안의 거문고와 피리 두 보물이 사라졌다. (대왕이) 이에 말하기를 “짐이 어찌 복이 없기로 저번에는 국선을 잃고서는 또 거문고와 피리를 잃었는가?” 라고 하고는 이에 창고를 맡은 관리(司庫吏)인 金貞高 등 5인을 가두었다. (693년) 4월에는 나라 안에 수소문하기를 “거문고와 피리를 얻

111) 『삼국사기』 권32, 雜志1 樂, “… 玄琴之作也 新羅古記云 初晉人以七絃琴 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及鼓之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厚賞 時第二相王山岳 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 以奏之 於時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 ….”

는 자는 1년 치의 조세를 상으로 주겠다” 라고 하였다. ...112)

위 L군 사료들은 고구려 문화의 상징으로서 ‘거문고(玄琴)’의 존재와 그것을 대하는 신라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즉 사료 M-①에서 ‘新羅古記’를 인용한 『삼국사기』 악지 기록에서 보이듯이 거문고와 그 악곡들은 본래 고구려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당대인들에게도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 혹은 정체성을 대표하는 요소로서 인식되었던 듯하다.¹¹³⁾ 그리고 사료 L-②에서는 그러한 거문고가 이미 고구려가 멸망한지 오래인 7세기 후반 시점에서도 신라 왕실에 의해 內庫(天尊庫)에 엄중히 보관되면서 그 유명한 萬波息笛에 버금가는 國寶로서 취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만파식적이란 7세기 당시 시점에서 일통의 달성으로서 국가의 평안을 불러온 왕실(문무왕) 및 김유신의 蔭德을 상징하는 보물이었다. 그러한 만큼 이와 짝을 이루는 보물로서 하필 일통의 주된 대상 중 하나였던 고구려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거문고가 언급된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다. 아울러 비록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이러한 거문고의 소실이 國仙 부레랑의 피랍과 같은 북방 영역, 즉 고구려고지에서의 변고와도 연관되면서 조정 차원에서도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7세기 후반 신라는 만파식적과 더불어 거문고를 같은 시기 중대 왕권이 이뤄낸 ‘일통’을 상징하는 신성한 국보로서 취급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중에서도 거문고의 경우는 고구려 그 자체가 신라에 의해 복속되어 그 문화와 정통성 역시도 자국의 일부로 정당하게 통합되었다는 역사정치적 맥락을 드러내고자 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었기에, 만파식적과도 대비되는 보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즉 7세기 대를 전후하여 거문고와 같은 악기 및 음악이라는 일견 사소한 측면에서도 신라는 고구려가 이미 자국의 일부로 통합된,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의도를 내포하며 ‘일통’의 이념을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인식의 근원은 다름 아닌 과거 문무신문왕대까지 이어졌던 고구려 유민, 즉 한성 고구려국 및 보덕국에 대한 경략이라는 신라인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상 지금까지 문무-신문왕대에 걸쳐 보덕국(한성 고구려국)으로 대표되는바 고구려 유민들

112) 『삼국유사』 권3, 塔像4 柏栗寺 “天授 四年【□長壽二年】癸巳暮春之月 領徒遊金蘭 到北溟之境 被狄賊所掠而去 … 大王聞之 驚駭不勝曰 先君得神笛傳于朕躬 今與玄琴藏在內庫 因何國仙忽爲賊俘爲之奈何【琴笛事具載別傳】 時有瑞雲覆天尊庫 王又震懼使檢之 庫內失琴笛二寶 乃曰 朕何不予昨失國仙又亡琴笛 乃囚司庫吏金貞高等五人 四月募於國曰 得琴笛者賞之一歲租.”

113) 한홍섭, 2005, 311-318쪽 ; 이는 또한 과거 진흥왕대 가야제국의 복속 과정과 관련하여 于勒에 의해 신라로 전래되고 활용되었던 가야금 및 그 연주곡들의 의미와도 유사한 사례로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에 대한 신라의 경략 및 통합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668년 이래 고구려고지 전역에 걸쳐 당의 지배에 대한 유민들의 저항과 이탈이 빈발하였는데, 그 중 특히 한성·평양 등의 서북방면을 기반으로 삼은 안승·고연무 등의 활동 양상이 두드러졌다. 무엇보다도 인접한 신라 역시도 배후에서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이는 즉 나당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옛 삼국의 분할·병존을 골자로 하는 당 기미주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더불어, 그를 파훼하며 신라의 영향력을 부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안배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670년대 초 옥골·개돈양 전투부터 ‘한성 고구려국’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쇄적인 사건들은, 곧 요동 방면에서 남하한 검모잡 집단과 한성 방면의 고연무 집단이 신라의 후원과 책봉 아래 옛 고구려 왕실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계승자(嗣子)’로서 공인된 존재인 안승을 매개로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성 고구려국’과의 연계를 통해 서북방면에 걸친 깊은 縱深을 확보하여 북방전선을 상당 기간 안정시킨다는 실질적인 전략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대왕’이 보다 우월한 위계에서 ‘고구려왕’을 책봉·공인하였던 의례는 향후 고구려의 영토와 정통성 등에 대하여 신라가 어떠한 연고권 혹은 지분을 주장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는 과거 취리산 회맹으로 대표되는바 당의 기미주 체제에서 내세우던 논리를 우회·무력화시키면서, ‘평양이남과 백제토지(혹은 표상으로서의 삼한)’라는 한정된 권역에서만큼은 신라를 중심으로 한 헤게모니(hegemony)를 관철하여 ‘王者’로서의 위상과 도덕적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장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672-673년에 걸쳐 당군의 본격적인 공세 아래 신라-고구려 연합군이 수차례 참패를 맞보면서, 신라의 후원에 의존하던 한성 고구려국은 서북방면의 원 근거지를 상실하고 점차 소멸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왕 안승을 비롯한 잔여세력은 673년 무렵 신라 영내로 유입되었으며, 신라는 사실상 대규모 무장 난민에 가까운 이들에 대한 원활한 통제와 감시를 위해 금마저(익산)에 집단적으로 안치시켰다. 아울러 674년에는 안승을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다시금 책봉하였는데, 이는 신라에 대한 종속적 성격을 강화하며 상하 위계를 명확히 자리매김하려는 조치였다. 이는 더 나아가 674년 시점에서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藩屏’이자 ‘外援’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하여, 옛 강국 고구려까지도 복속시킨 ‘大國’ 신라의 ‘威德’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의례적·이념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신라로서는 자국 영내에서 자치를 행하는 대규모 이민족 집단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보덕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언젠가는 동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전면적인 침공이 예고되어 있던 674-676년의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일단 현상 유지 상태로 보류해둘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이후 나당전쟁이 사실상 신라의 승전에 가까운 형태로 일단락되면서 신라 조정 내에서

보덕국의 처리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문무왕대에는 그 스스로가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며 보덕국을 책봉하고 공인한 당사자라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명목상 번국으로서의 외형만큼은 남겨두면서 정략결혼 등의 수단으로 신라 왕실과의 친연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그를 매개로 고구려의 정통성 자체를 신라로 移植하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신문왕대에 들어서는 즉위 직후 김흠돌 세력의 숙청을 계기로 당시 신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추진되던 중앙집권화·관료화라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 보덕국의 처리 역시도 전면적인 해체와 동화라는 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683년 10월 국왕 안승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왕경 소환이라는 조치로 드러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보덕국의 해체와 더불어 그 구성원을 관료와 공민으로서 신라 국가의 통치 체계 아래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신라에게 있어 이러한 조치는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오로지 중대 왕실만을 유일한 정점으로 삼은 중앙집권적·일원적인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갈등의 소재가 되어 왔던 고구려 문제로 더 이상 曰可曰否할 맥락을 미리 봉쇄하면서 당과의 관계 개선 및 정세 안정화를 꾀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라의 조치는 의도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親신라와 反신라를 둘러싼 보덕국 내부의 잠재적인 갈등을 재차 표면에 드러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이는 684년 11월 대문의 처형 등의 사건을 거쳐 금마저에 잔류하던 보덕성민의 대대적인 반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반란은 무력으로 진압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강고하게 남아있는 옛 삼국의 정체성과 유민의식이 가진 폭발력을 신라 조정이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신라는 이들에 대한 사후처리에 있어 徙民과 같은 강경책만이 아니라, 9서당 편성 및 京位 관등의 수여와 같이 포섭과 회유를 위한 온건책도 병행해야만 했다. 다만 그와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同系の 집단일지라도 철저히 신라 중심적인 인식과 기준 하에 ‘고구려민(황금서당, 683)’ 과 ‘보덕성민(벽금·적금서당, 686)’, ‘백제민(백금서당, 672)’ 과 ‘백제잔민(청금서당, 687)’ 을 분할하여 경쟁시킴으로서, 개별 주민 집단 상호 간의 연계를 막고 중앙의 감시와 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인 필요성 아래 이미 나당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태동하던 ‘일통’의 이념 역시 그 가치가 재인식되었다. 즉 신라의 고구려 유민(보덕국/한성 고구려국)에 대한 경략의 과정에서, ‘삼한’으로 지칭되는 옛 한반도 삼국 전체를 신라 중심의 ‘一家’로 통합하려는 이념이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특히 거문고(玄琴)와 같은 고구려 계통의 문화적 전통 역시 그러한 ‘一統’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한 측면으로서 수용 및 활용되었던 사례로도 이해할 수 있다.

투고일: 2024.10.28,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귀』, 『통전』, 『당회요』, 『천지서상지』, 『일본서기』

강세권 외, 2011, 『조선단대사-신라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권덕영, 2005, 「8·9세기 ‘군자국’에 온 당나라 사절」, 『신라문화』25.
권창혁, 2019,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95.
권창혁, 2021, 「670-673년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전략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51.
권창혁, 2023, 「나당전쟁기 한신주의 관방체계 정비와 주장성의 위상」, 『군사』129.
기경량, 2019, 「일통삼한 의식과 ‘표상’으로서의 삼한」, 『역사비평』128.
김강훈, 2018, 「고구려부흥운동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강훈, 2022, 『고구려 부흥운동 연구』, 학연문화사.
김덕원, 2023, 「나당동맹의 파탄 과정」, 『신라사학보』59.
김수진, 2020, 「670년 평양 일대 고구려 유민의 남하와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실학』72.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上)』, 일조각.
김수태, 1996,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일조각.
김수태, 1999,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52.
김수태, 2014,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32.
김영관, 2009, 「취리산회맹과 당의 백제 고도 지배 정책」, 『선사와 고대』36.
김영하, 2009, 「신라 중대왕권의 기반과 지향」, 『한국사학보』16.
김영하, 2010,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59.
김종복, 2003,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림』19.
김종복, 2010, 「백제와 고구려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78.
김종복, 2016,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진단학보』126.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도설지」, 『진단학보』81.
김태식, 1999, 「김해 수로왕릉과 허황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한국사론』41·42.
노중국, 1999, 「신라 통일기 구서당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론』41·42.
노태돈, 1997, 「나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34.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박남수, 2016,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38.
박명호, 2008, 「신문왕의 교서를 통해 본 김군관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31.
박종욱, 2021, 「가잠성의 지리적 환경과 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공방」, 『한국사학보』84.
박초롱, 2017, 「문무왕대 고구려·가야의 조상제사 재개조치와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86.
방용철, 2018, 「고구려 부흥전쟁의 발발과 그 성격」, 『대구사학』133.

- 방용철, 2021, 「문무왕의 인승 책봉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63.
- 서영교, 2002,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38.
-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 서영교, 2009,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헤성」, 『인문학연구』78.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서인한, 1999, 『나당전쟁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손영중, 2000,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 신은이, 2018,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132.
- 신은이, 2023, 「나당전쟁의 전개와 보덕국」, 『영남학』84.
- 안주홍, 2021, 「신라 태종 모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신라사학보』52.
- 양병룡, 1997,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전쟁」, 『사충』46.
- 여효규·拜根興, 2017, 「유민모지명을 통해 본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 『동양학』69.
- 윤경진, 2013,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53.
- 윤성호, 2018, 『신라의 한강 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 이기백, 1982, 『한국사강좌—고대편』, 일조각.
- 이기천, 2012, 「7세기 당의 제위장군호 수여와 변장의 대응」, 『동양사학연구』120.
- 이미경, 2015,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120.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상훈, 2010, 「나당전쟁의 개전과 설오유 부대」, 『역사교육논집』45.
- 이상훈, 2012,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 이상훈, 2014,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 이상훈, 2016,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23.
- 이상훈, 2017,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104.
- 이상훈, 2022, 「나당전쟁기 고구려 한시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아시아고대학』67.
- 이상훈, 2023, 「고구려 부흥운동기 사야도의 위치에 대하여」, 『북악사론』18.
- 이완석, 2015, 「당대 국제관계와 외교체제의 변용」, 『중국중세사연구』38.
- 이영호, 1996, 「신라 집사부의 설치와 중시」, 『국사관논총』69.
- 이인철, 2001, 「6-7세기의 말갈」, 『한국사론』95.
- 이재석, 2010,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31.
- 이재환, 2022, 「가야계 ‘신라인’의 활동과 위상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105.
-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72.
- 이호영, 1997,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임기환, 2024, 「고구려 부흥운동 자료의 재검토」, 『한국사학보』94, 2024.
- 임병태, 1967, 「신라소경고」, 『역사학보』35·36합집.
- 장병진, 2016, 「당의 고구려고지 지배 방식과 유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101.
- 장창은, 2020,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 전덕재, 2013, 「가잠성의 위치와 그 전투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경계』87.
-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4)-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정덕기, 2023, 「신라 진평왕대 가잠성 전투와 공훈의 역사속」, 『복약사론』18.
- 정선여, 2010,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역사와 담론』56.
- 정선여, 2013, 「신라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66.
- 정원주, 2018, 「당의 고구려 지배정책과 안승의 행보」, 『한국고대사탐구』29.
- 정원주, 2019, 「안승의 항방과 고구려 부흥운동」, 『군사』110.
- 조법종, 2015,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78.
- 추명엽, 2022, 「8-11세기 해동천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 채미하, 2015,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추존」, 『한국사학보』61.
- 최민희, 2002, 「『의봉사년개토』 글씨기와의를 통해 본 신라의 통일 의식과 통일기년」, 『경주사학』 21.
- 최민희, 2018, 「『의봉사년개토』 글씨기와의 ‘개토’ 재론-‘납음오행’론 비판」, 『한국고대사탐구』30.
- 최상기, 2022, 「신라 9서당 구성원의 성격과 역할-소속 군관의 출신과 일부 병종을 중심으로-」, 『중앙사론』56.
- 최영진, 2020, 「신라 중대 전제왕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41-2.
- 최재도, 2015,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47.
- 최호원, 2020, 「고구려 검모잠·안승 세력과 대신라관계 인식」, 『신라사학보』49.
- 최흥조, 1999, 「신문왕대 김흠돌 난의 재검토」, 『대구사학』58.
- 최희준, 2020, 「7세기 후반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이민 정책」, 『신라사학보』50.
- 최희준, 2021, 「7세기 후반 신라의 영점의례 구성」, 『신라문화』59.
-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 한준수, 2012, 『신라중대 율령정치사연구』, 서경문화사.
- 한준수, 2023, 「7세기 후반 신라의 지배질서 정비와 여제유민의 대응」, 『한국사연구』201.
- 한홍섭, 2005, 「고구려의 문화전통과 거문고」, 『인문연구』48.
- 황운룡, 1982, 「신라태종묘호의 분규시말」, 『동국사학』17.
- 古畑徹, 1983,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107.

-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金子修一, 2001, 「중국의 입장에서 본 삼국통일」, 『한국고대사연구』23.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門題』, 東洋文庫.
植田喜兵成智, 2022, 『新羅·唐關係と百濟·高句麗遺民』, 山川出版社.
植田喜兵成智, 2023, 「670년대 신라와 당의 대립과 소통—설인귀·문무왕서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학』85.
井上直樹, 2021, 『高句麗の史的展開過程と東アジア』, 塙書房.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上世 第2策)』, 吉川弘文館.
津田左右吉, 1913, 『朝鮮歷史地理(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村上四男, 1978,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Abstract】

Silla's domination of Bodeok State and Unification Ideology

Kwon, Chang-hyuck

(Local Government Curator of Pohang City)

Since 668, Silla, on the eve of the Silla-Tang War, directly and indirectly supported the Goguryeo's restoration uprising in the northwest side of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the accumulated discontent with the Tang's Jimifuzhou(靑州) system, which was based on the division and coexistence of the old three kingdoms, and strategically arranged to undermine it and erode its influence. Accordingly, various refugee groups joined forces through An-seung(安勝), the successor who guaranteed the legitimacy of the Goguryeo kingdom under Silla's support and investiture,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ansung Goguryeo State (漢城 高句麗國)" in early 670. From Silla's perspective, it was able to gain the practical strategic advantage of stabilizing the northern fron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rough its connection and support with this Hansung Goguryeo State. In addition, it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ideological device that allowed it to flaunt Silla-centered hegemony and moral legitimac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t least with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the Tang army began its full-scale offensive in 672-673, Hansung Goguryeo State lost its original base and its remaining forces flowed into Silla territory. In order to control them smoothly, Silla encamped them in Geummajeo(金馬渚, Iksan), and in 674, An-seung was re-appointed as 'the King of Bodeok(報德王)' from 'the King of Goguryeo(高句麗王)', further clarifying the hierarchy. This can also be understood as a measure to maximize the ceremonial and ideological value of Silla as a symbol of 'dignity and virtue' that subjugated Bodeok State(報德國), replacing the strategic value that was no longer expected due to the change in circumstances.

Afterwards, as the Silla-Tang War ended in a form that was virtually a victory for Silla, the handling of Bodeok State began to emerge as an important agenda. However, unlike King Munmu, King Sinmun took a radical approach of complete dissolution and assimilation in the Bodeok Stat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centr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immediately after his

ascension to the throne, triggered by the purge of the Kim Heumdol's faction. This meant that while internally establishing a centralized bureaucratic system, externally seeking to resolve the Goguryeo refugee and restoration movement issue in order to impro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ang. However, this measure escalated into a large-scale rebellion by the People of Bodeok Stronghold(報德城民) in 684. Although the rebellion itself was suppressed by force, it became an turning point to recognize the explosive power of the old Three Kingdoms refugee consciousness that still remained strong. Therefore, even after the suppression of the rebellion, Silla adopted not only a hard-line policy but also a moderate policy toward the People of Bodeok Stronghold, and thoroughly blocked connections between various resident groups based on Silla-centered standards, making surveillance and control easier. On the other hand, under such political necessity, the unified ideology centered on Silla was also able to develop into a more specific and refined form.

Keywords : Hansung Goguryeo State(漢城 高句麗國), the King of Bodeok(報德王), Bodeok State(報德國), An-Seung(安勝), the People of Goguryeo(高句麗民), the People of Bodeok Stronghold(報德城民), Unification Ideology of Silla(一統理念)